

윤석열 대통령,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확고한 총력안보태세”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다만,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으며,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표창, 대통령 모두발언, 기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



자력발전소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진 주제토론에서는 (1)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2)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점차 다양해지는 북한의 도발유형에 맞춰 통합방

위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민간과 정부, 군·경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뭉쳐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K-컬처 100선’에 선정

올해로 29회째인 축제 발판삼아 남도음식 세계화 속도 낼 듯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케이(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선정돼 남도 음식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간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예술·체육·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케이-컬처를 즐기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벤트를 선정한 것이다.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100선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2개소와 해외 주요 도시 현지 로드쇼, 관광박람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홍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29회째를 맞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국제행사로 확대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1994년부터 시작된 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1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미식관, 미식산업관을 신규 운영하고, 주한대사관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을 전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국제남도음식 요리경연대회와 남도 외국인 미식투어 등도 운영해 외국인 참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명인관에서는 남도음식명인 9명의 요리비법을 배우고 명인음식을 시킬 수 있으며, 남도 섬 음식 등 스페

셜 전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22개 시군 으뜸음식 판매장터, 시군별 특산물, 도내 청년창업, 세계요리 판매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대표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고 전통주 체험과, 남도 빵 만들기, 남도 장터유एस(US)몰과 아마존 수출 상 위 품목 시식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남도는 또 최근 전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푸드의 원류로서 남도음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국어 누리집도 조기 구축해 남도 음식의 해외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선정된 것은 남도음식의 매력과 위상이 반영된 것으로 2025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 확대 개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도음식이 케이-푸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경북도,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SMR 활용한 선박 및 해양시스템 개발을 위해 9개 기관 MOU 체결 -
-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 등 국내 대형 해운사 동참 -
-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기대 -

경북도는 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과 ‘원자력 선박·해양시스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기존 디젤엔진 대체를 위한 새로운 해양선박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대형선박 추진용 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향후 상용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으며 HMM, 장금상선 등 국내 대형 해운사가 참여해 그 의미가 크다.

9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용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실증 ▲소형모듈원자로 추진 선박·해양시스템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및 인허가 대응 ▲원자력추진 선박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해양에너지원료 주목받고 있는 용융염원자로(MSR*)는 선박 운영기간 동안 핵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핵연료가 액체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 시 자연적으로 고체화되어 방사능물질의 누출 우려가 없으므로 선원 안전성을 담보해야하는 해양선박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Molten Salt Reactor : 고체의 염을 고온으로 녹인 용융염에 핵연료 물질을 섞어 사용하는 “액체연료 원자로”

고도의 안전성을 가지면서도 구조가 매우 단순해 소형화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해양 활용에 적합한 이유이다.

이미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원자



경북도가 경주에 추진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북도 제공)

력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해양, 우주 활용을 위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관련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양선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협약에 참여한 HMM, 장금상선, 에이치라인해운, 우양상선은 컨테이너선, LNG운반선 분야 우리나라 대표 해운사이며 대형 선박의 탄소중립 실현은 향후 해운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장래 업계의 명운이 걸

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향후 세계 최고의 원자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내외의 68개 지부를 보유한 한국선급의 선박 검사·인증 기술 및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선박 안전설계 기술이 모여져 원자력추진 선박 해양시스템이 개발된다면 해양운송 분야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자력은 전기 생산 시 탄소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원이고 해양, 수소생산 등 그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며, “환경해를 중심으로 글로벌 혁신원자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북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도전합니다!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서울시와 건전한 균형 관계 구축 및 협력 약속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 제4차 당정협의회 개최해 2월 임시회 주요 안건 등 현안 논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 의원은 2023년 서울시와 첫 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회 주요 안건 등 현안과 관련해 시와 건전한 균형관계 유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서울시와 제4차 당정협의회를 열어 2월 임시회 제출 안건 등 올해 서울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 김길영 원내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 정책부위원장, 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서호연 권역부대표, 이병운 권역부대표, 김태수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 김종길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고, 서울시 오신환 서울시 정부부시장과 각

실·국장 등이 보고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주요 현안으로, 민선8기의 창의행정 이행전략과 취약계층 한파대응 민생안전 대책,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한 요금 인상안, 약자와의 동행추진단의 관련 조례 제정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진 계획 및 2월 임시회 주요 제출 안건을 소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부터 약자와의 동행, 불필요한 사업 심의, 창의행정 추진 등 민선 8기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보다 차별화된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특정 세력으로 가는 보조금지원 체계 개편 등 서울시 바로 세우기의 지속적 추진과 이날 발표된 정

부의 주거 안정 정책에서 배제된 서울시의 분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고, 인구소멸과 지방축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안과 관련해 최호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결의안'을 통해 손실의 정부 보전을 적극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작년 택시요금 인상과 정부의 난방비 인상에 이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서 서울시 행정에 큰 변화의 기점이 마련됐다"며 "지난해는 전임시장과 민주당 다수 의회에서 이어진 편향과 관행을 타파하는 한 해였다면, 올해야말로 서울시는 민선 8기 정책을 제대로 펼치는 원년이 되고, 의회도 의결기구로서 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2월 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 아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와 건전한 균형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충남도의회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강력 촉구



충남도의회는 8일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기준 한우산업 종사자 수는 35만 7000명으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한우산업에 관련된 인구는 약 88만 명, 연관된 산업 예산은 약 13조 1500억 원 정도이며, 생산액은 5조 7000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 한우농가는 오랜 기간 가격 불안정에 시달려 왔다. 그러나 도출·출하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은 전무하다.

이 의원은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목표·기본방향 설정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우산업 발전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2022년 12월 21일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우산업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경기도의회, 몽골 다르항을 도의회와 '친선교류 재개'...염종현 의장, "우호협력 10주년 맞아 양자 협력 확대해야"

8일 의장 접견실서 강바트 건직수령 전 다르항을 의원 등 접견

경기도의회가 몽골 다르항을(Darkhan-Uul)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맞아 기관 간 친선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나산바트(Sunduijav Nasanbat) 다르항을도 의장이 염종현 의장을 공식 초청하고, 현직 도의원 전원의 경기도 방문의사를 밝히는 등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제교류가 다시금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장은 지난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나산바트 의장의 사절 자측으로 의회를 방문한 강바트 건직수령(Ganbat Gonchigsuren) 전(前) 다르항을도 의원과 몽골 최대 보험회사인 '몽골 다투갈(Mongol Daatgal)'의 에르덴 불강(Erden Bulgan) 대표, 부의장 재임 당시 양 기관의 우호협력 체결에 앞장 선 임재호 전 의원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김충석 의회사무처장과 백승기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바트 전 의원은 나산바트 의장의 공식 서한문을 염 의장에게 전달하며 유창한 한국어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서한문에 담긴 주요 요청사항은 ▲협력 강화 및 지속을 위한 염종현 의장의 다르항을 방문 ▲협력관계 양해각서 갱신 ▲다르항을도 의장 및 의원 30명의 경기도의회 방문 등이다.

강바트 전 의원은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몽골과 막강한 기술력·경쟁력을 쌓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협력한다면 양국의 공동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며 "양국 단합에 다르항을도와 경기도의 양 의회가 다리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다르항을 도의회의 우의 증진 의사 표명에 염 의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그는 "오늘 접견으로 코로나 발생 후 3년 여 간 중단됐던 소통이 재개돼 무척 기쁘다"라며 "교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친선의원연맹 구성을 완료했고, 내년 중 다르항을 교류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류 10주년을 기념해 두 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 지역의 산업·기업적 교류 확대의 물꼬를 트길 희망한다"라며 "다르항을도의회 의장과 의원들의 4월 방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답했다.

화답을 마친 뒤 염 의장과 강바트 전 의원은 각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특성을 담은 '능행도 8첩 병풍'과 '몽골술'을 답례품으로 전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4년 3월 14일 다르항을 도의회와 우호협력 협의회를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고, 경기도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 용인특례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참석

15대·제16대 용인특례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일시: 2023. 2. 7. (화) 11시 장소: 용인시청 컨벤션홀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 오전 11시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5대·제16대 용인특례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 김상수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석, 황미상, 김영식, 유진선, 박희정, 이교우, 신현녀, 박은선, 박병민, 기주옥, 김윤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제15대 장인용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김석주 회장의 취임에 대해 감사

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윤원균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을 빛나게 할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하고, "용인시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자치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새로운 특례시를 만들어가는데 의회도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정광섭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수산·해양학과 신설 촉구

서해안이 전국을 대표하는 수산·해양업의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충남도립대학교에 수산·해양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은 8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수산·해양 관련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충남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보유하고 있고, 15개 시·군 중 태안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며 "우리도의 어업인구는 2021년 기준 1만 3689명으로 전국 9만 7062명 대비 14.15%로 전국 순위 3위이나, 고령

화 비율도 45%로 전국 최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역의 수산해양 전문인재 양성 사업은 미미한 상황으로, 충남의 해양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산·해양산업을 이끌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하향 학과의 정원수를 조정, 수산·해양학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근/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 가저



수원특례시의회는 김기정 의장이 지난 7일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하여 김범식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협의회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5일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달 5일 정기회의를 열고, 신임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김범식 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며, 마

을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마을자치권을 강화하여 '풀뿌리 마을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장님들의 협력과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하며 "협의회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조혜영/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 | | |
|------------------|----------------|--------------------|
| 편집국:02.2612.2959 | 경 회 부:대선 (114) | 문 화 부:대선 (116) |
| 광고국:1899.9659 | 경 계 부:대선 (115) | 사 회 부:대선 (113) |
| | 경 회 부:대선 (112) | 부 동 산 부:대선 (117) |
| | 경 회 부:대선 (111) | 오 리 님 연 부:대선 (118) |
| | 경 회 부:대선 (110) | 스 포 츠 부:대선 (115) |
| | 경 회 부:대선 (109) | 지 방 부:대선 (119) |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성시-경기도교육청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 협약 체결



안성시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 협약을 맺고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교육지원청과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협력지구란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지난 안성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성찰을 통해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협력지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역 교육공동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에 기반한 교육격차 해소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안성맞춤 미래 교육 행복도시 체제 구축이라는 3대 목표에 맞춰 31개 세부사업을 계획

중이며, 시비 22억4천8백만원에 포함하여 총27억4천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계획은 ▲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컨퍼런스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 ▲마을자원 활용교육, 생명안전 나나 지킴이, 어울림 한마당 등을 통한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 ▲빛깔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메이커 융합 교육, 진로교육 등을 통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행복도시 구축 등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18년부터 진행된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며 더욱 발전된 협력사업들을 진행하게 됐는데, 이전 사업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노동강 교육격차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라며, 안성시도 언제나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바람직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민선8기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도민참여형 교육시군 역할 강화

제1~2기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경기도가 도민 참여형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문제 해결 능력 육성 교육을 새롭게 도입한다. 다양한 계층의 도정 참여를 위해 스마트폰 활용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미래 문해교육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 8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주시민 육성을 장려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1기 계획은 2017년~2019년, 2기 계획은 2020년~2022년까지 적용됐으며 민선8기에 수립한 이번 3기 계획은 2023년~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5년 조례제정 이후 제1기 사업기간 동안 공모사업,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토론회 등 도내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구축했고, 제2기 사업 기간에는 시군

프로그램지원과 센터 운영 지원 등 시군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 기간 제1기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35억 8천만 원에서 제2기 93억으로 3배가량 증액됐고,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거나 평생교육 조례에 포함하는 곳이 1기 22개 시군에서 2022년 말 기준 28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번 3기 동안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경기도 주도로 진행해 온 민주시민교육을 시군 위주로 전환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가 교육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해왔다면 3기 기간에는 도민 소통 및 공론장 강화, 도-시군-민간 협치 및 네트워크 강화 등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제3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참여, 더 나은 변화로 활력있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으로, 3대 전략목표와 9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도민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켜 더 나은 변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3대 전략목표는 ▲더 많은 기회의 생활시민교육 기반구축 ▲더 고른 참여의 지역 시민교육 실현 ▲더 나은 변화의 민·관·학 시민교육 협치 구현으로 각 전략목표 별 3개씩 총 9개의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민이 교육주체 선정과 문제해결 방안을 주체적으로 모색하는 참여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생애 단계별 교육, 미래 문해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활동가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참여 시민교육을 지원한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제1~2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8기 민주시민교육은 더 많은 기회 제공과 더 고른 참여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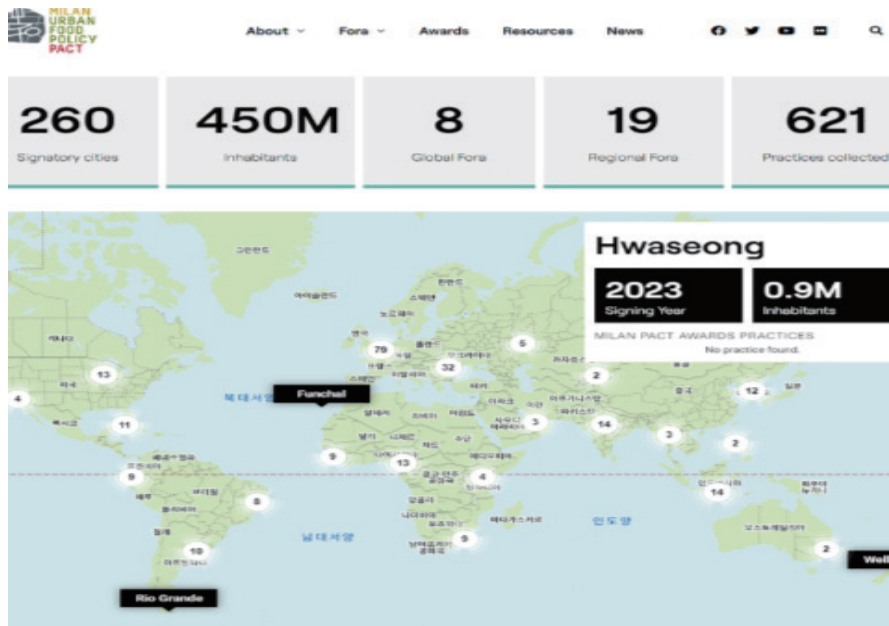
오산시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간편히'

오산시가 여권 재발급은 민원실을 한 번만 방문해도 되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발급'을 활용해달라 당부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여권 신청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재발급을 미루다 코로나19 제한조치가 완화되자 여권 민원이 폭증한 상태로 시청 여권 발급 창구가 대기 민원으로 종일 북새통을 이룬다고 전했다. 여권 발급량 급증에 따라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 기간이 기존 5일 정도에서 최근 2주까지 늘었으며 시청을 방문해 여권업무를 보려면 2~3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반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만 18

세 이상으로 신규가 아닌 이전 전자여권(2008.8.25. 이후 발급된 일반여권) 소지자의 발급이 재발급일 경우에 가능하다. 시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권 수령할 때만 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김성복 민원여권과장은 "요즘같이 여권 발급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시간도 단축될뿐더러 더 편리하다"라면서 "전국적으로 여권발급 신청이 폭증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한 2주 전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양시현/기자

화성시,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맺어

6일,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도시 등록... 경기도에선 최초



화성시가 지속가능한 농촌을 넘어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재로서의 먹거리 정책을 펼치고자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에 합류했다고 8일 밝혔다. 2015년 첫 도입된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먹거리 공급과 소비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체결된 국제 협약이다. 현재 세계 260여 국제 도시가 참여 중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시가 유일하다. 시는 이번 협약도시 등록을 시작으로 ▲먹거리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영양유지 ▲사회적경제 형평성 강화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먹거리공급 및

유통체계 구축 ▲먹거리 폐기관리를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수시로 개최되는 지역포럼 '아시아-태평양권역 포럼'과 2년에 1회 개최되는 글로벌 포럼 '밀라노 어워즈'에 참석해 다양한 먹거리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공공(학교)급식 물류 인프라 구축, 식문화 교육 및 캠페인 등 그간 펼쳐온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세계도시들과 함께 먹거리 순환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봉화군 물아저수지 3색 힐링의 웃을 입다!

- 그저 흔한 저수지, 새로운 관광명으로 재탄생하다!**
일반 저수지에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V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총 3개 구간에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명으로 재탄생합니다.
- 물아 오전리, 『娛(즐거울 오) 塵(터 전)』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로 거듭나다!**
오전리는 보부상이라는 역사적인 가치와 매력이 충만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V로드에서부터 오전약수관광지까지 봉화 보부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친환경 힐링도시 '봉화군'!**
오전약수관광지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 중 하나로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사업(V로드)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8명, “3고 경제위기로 스트레스”

경기연구원,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발간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위기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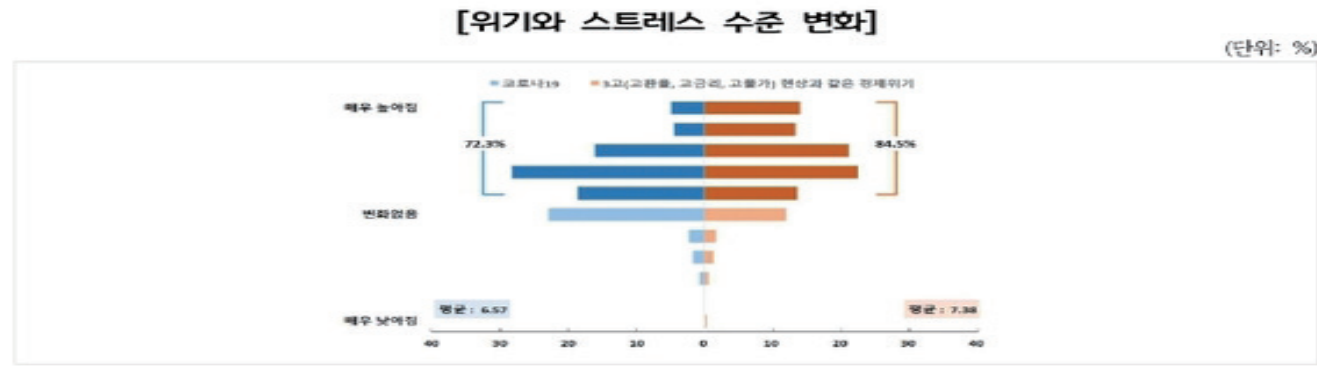
경기연구원은 2022년 11월 24일~12월 1일 경기도민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위기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었다는 응답자가 84.5%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자 87.8%와 남자 81.3%, 연령별로는 40대 87.7%, 30대 86.7%, 50대 85.5%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3고 스트레스 응답률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응답률 72.3%보다 높다.

우울증(PHQ-9) 심각도는 2021년 3월 도민 조사와 비교 시 '우울증에 해당된다'가 16.5%에서 56.8%로 증가했다.

우울증 평균 점수는 6.92점인데, 이는 우울증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분석돼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3고 현상과 같은 경제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경기연구원(2022). "경기도민 정신건강실태조사".

우울증(PHQ-9) 심각도의 가구 특성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우울증 점수는 9.59점으로 비수급 가구 6.41점과 비교해 3점 이상 차이났다. 가구 형태별로는 혼자 사는 사람의 우울 수준(8.03점)이 다인 가구 거주자(6.25점)에 비해 높아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우울 수준의 편차가 컸다.

3고 경제문제에 의한 스트레스 수준과 우울증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 점수도 일관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다'는 응답자의 우울증 점수는

8.20점으로 '보통' 5.68점, '전혀 받지 않음' 2.42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연구원은 정신건강 수준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위기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선별 대책, 사각지대 발굴 ▲위기 상황 종료 후 자살률 증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정신건강 수준 악화 예방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신건강센터 인지도 제고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상담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연계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정확한 정신건강 수준 파악

위험 꾸준한 조사 및 변화 확인 등을 제시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유형과 정신건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 요인들을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돼야 한다"며 "최근 위기(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락해 상담을 원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부천시, 4년 만에 돌아오는 3대 봄꽃축제 개최 준비

4월 초 개최 목표로 3대 봄꽃축제 통합추진 TF팀 가동

부천시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3대 봄꽃축제(원미산 진달래꽃, 도당산 벚꽃, 춘덕산 복숭아꽃)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시는 오는 4월 초 개최를 목표로 3개 동(춘의·도당·역곡) 축제 추진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러 축제 전문가, 행사 전문가, 홍보 전문가, 지역 문화기관, 민간단체 등과 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달 중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부천시 3대 봄꽃 축제에서는 불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실감 콘텐츠 프로그램과 축제별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코로나19 이후 일상에 지친 시

민들의 몸과 마음에 안정과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 승격 50주년 기념 이벤트와 꽃길 트레킹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함께 꽃길을 걸으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또한 봄꽃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장 주변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4년 만에 봄꽃축제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동안 묵묵히 기다려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봄꽃의 정취를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축제, 더불어 수도권 최고의 봄꽃축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용인특례시 '스마일 점퍼' 이상혁 카자흐스탄에서 금빛사냥 나선다

입단 후 첫 국제무대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출전...올 시즌 첫 무대

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이자 한국 높이뛰기 최고기록(2.36m) 보유자인 이상혁 선수.

이상혁 선수는 지난해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식에서 "세계 육상 무대에 용인특례시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용인특례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이상혁 선수가 오는 12일 금빛사냥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소속으로 나서는 첫 국제대회다.

이상혁 선수가 참가하는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돼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다.

이상혁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높이뛰기는 오는 12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각)에 시작한다.

이상혁 선수는 지난 1월 체코 네흐비디 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체코 대회에 불참하고 이번 대회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려왔다.

우 선수는 이번 대회 후 국내에 잠시 복귀해 훈련에 매진한다. 5월 카타르 도하 다이아몬드 리그대회,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등 금빛 점퍼에 시동을 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많은 국민과 용인시민이 이상혁 선수를 아낌없이 응원하고 있다"며 "이상혁 선수가 그동안 많은 땀방울을 흘렸다. 부담감을 떨쳐내고,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기량을 마음껏 펼치 좋은 성과를 얻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조혜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이상혁 선수와 높이뛰기 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 "대상" 수상

광명시 노인위원회 운영을 통해 어르신 참여 행정 구현 노력

광명시는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공모전 고령친화 우수정책 분야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아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어르신 정책이 고령친화 우수정책으로 선정되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광명을 위해 어르신 참여 행정을 펼치며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고 수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시상식에는 건국대학교 이사장, 건국대학교 의료원장을 비롯하여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연구원장 및 선정위원회의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한 제1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은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참여와 일자리, 사회활동, 의사소통과 정보 및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을 심사하여 우리나라 건강고령친화 우수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6곳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광명시는 '광명시 노인위원회 운영을 통한 어르신 참여행정'을 주제로 시민 참여형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광명시 노인위원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건강증진분과, 일자리분과, 사회안전분과 등 3개분과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0년 11월 발대식을 거쳐 매년 정기회의 2회 및 분과회의 4회를 개최하며 2021년에 31건, 2022년 20건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오고 있다.

이 중 ▲어르신 문화·체육 오락 (Oh!樂)사업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홀몸어르신을 돌보는 돌봄 로봇 "광명이" ▲권역별 복지관 VR 치매예방기기 도입 ▲경로당 및 홀몸어르신 투척용 소화기 지원 ▲홀몸어르신 병원안심 동행서비스 ▲실버바리스타가 있는 카페 창업 ▲시니어 셀러드&샌드위치 가게 창업 ▲어르신 티치케어 서비스 등 15건의 신규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윤용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적극 외교 행보...중국·라오스 대사와 간담

상하이밍 중국대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논의 "상호 투자·인적교류 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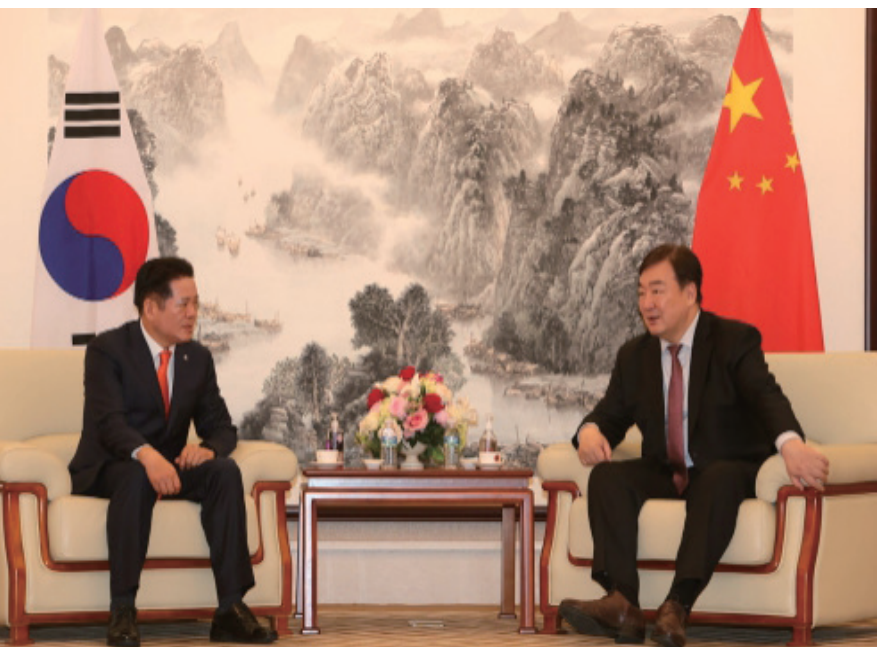
최대호 안양시장이 라오스 대사, 중국 대사를 잇따라 만나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최 시장은 8일 서울 명동에 있는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상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양국의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한 중국 대사관저에서 오찬을 가졌다.

최 시장과 상 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안양시와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중국 허난성 안양(安陽)시를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상 대사는 "한중 관계가 코로나 등으로 뜸했지만 다시 준비를 많이 해서 상호 투자와 인적교류를 늘리면 한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한동안 온라인으로 교류해온 자매도시,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팡시 및 안양(安陽)시에 방문해 대면으로 다시 활발히 교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며 "민간 외교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으므로 민간 차원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시장이 안양시의 미래선도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는 도시계획 구상을 언급하자 상 대사는 "중국 상하이, 심천 등의 도시에 참고할 만한 글로벌 기업이 많다"며 방문을 추천했다.

이날 간담과 오찬은 지난해 12월 상 대사의 안양시 방문에 대한 답방

대사와 간담 및 만찬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주한 라오스 대사로 부임한 송칸 대사는 오는 6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세계코리아포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안양시와 라오스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라오스를 비롯한 메콩벨트 지역은 무한한 잠재력과 시장성을 가진 지역인 만큼 저 또한 관심이 많다"라며 "세계코리아포럼에 참석해 안양시와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등 라오스 지자체와의 교류는 물론, 관내 기업의 라오스 내 판로확보를 통한 동남아 진출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이창주 국제코리아재단 상임의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해 안양시와 라오스 간 경제교류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올해 시승격 50주년을 맞은 안양시는 올 가을 6개국의 9개 국제자매(우호)도시를 비롯한 국제교류 도시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유용/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C40 운영위원(부의장)으로 선출, 국제기후리더십 활약발판 마련

C40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97개 대도시간 협의체로 운영위원은 시장 16인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운영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자 C40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C40는 기후위기의 영향과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전 세계 대도시 시장들이 주도하는 도시간 협의체로, 97개 C40 회원 도시는 인구 7억 명을 대표하며, 전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한다. C40 도시시장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C 내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정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

C40 운영위원(부의장)은 C40의 임무 수행에 전략적인 감독역할을 하며, C40 회원 도시시장들의 투표로 선출된다. 운영위원은 총 16인으로 C40 의장 1인(사디크 칸 現 런던시장)과 유럽, 북미, 중남미 등 6개 지역소속 대도시시장 13인 및 인구 3백만 미만의 혁신도시(innovator cities) 시장 2인으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C40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했으나 이번 C40 운영위원 선출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단독 후보로 출마한 것이 아니라 셀러브 호주 멤버인 시장도 출마하여 오세훈 시장과 경합했으며, 또한 지역 내 이미 동아시아의 도쿄시장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 균형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동아시아-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내 투표권을 가진 10개 도시시장으로부터 과반수 득표를 통해 C40 운영위원으로 당선됐다.

한편, C40 운영위원직은 도시가 아닌 시장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으로 이번 당선은 오세훈 시장의 과거 서울시장 재직기간(2006.7.1.~2011.8.26.)인 2006년 서울시가 C40에 가입하고, 2009년 5월 제3차 C40 총회를 개최하는 등 래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들과의 협력과 연대에 기여한 오 시장의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2021년 6월 '대중교통 글로벌연대 C40시장 성명', 2022년 10월 'C40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총회' 등에 참여하며 C40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21년 6월 시가 수립한 2050 탄소중립 기후행동계획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C40에 제출하여 파리협정의 1.5°C 제한 목표 달성에 부합한다는 C40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는 2022년 2월 기준 기후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및 C40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평가하는 C40 회원도시 의무 참여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2022년 6월 및 2023년 2월 대기질 개선,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등을 C40 도시 정책사례집 발간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는 2월 16일 비대면 회의로 개최되는 C40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시작으로 C40 운영위원으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회의를 통해 2022년 C40의 개도국 도시 지원사업, C40 회원 도시의 대기질



개선 및 그린 일자리 창출 성과 등 작년 C40 활동 성과를 공유받고 2023년 C40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행동 정책 및 C40 시장의 리더십 발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C40 운영위원 당선을 계기로 C40 활동을 통해 기후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세계도시에 널리 알리고, 민선 4선 시장으로서 쌓아온 시정 경험을 C40 도시들과 공유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C40 도시

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후약자를 위한 집수리 보조와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에너지닥터(에너지설계사)를 통한 에너지 컨설팅 지원 및 기업 연계 제로웨이스트(쓰레기줄이기) 분야 신규 일자리 발굴 등을 친환경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장이 C40 운영위원이자 부의

장으로 선출된 것은 서울시가 기후환경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서울시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오는 6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존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광수/기자

금천구, 2023년 안심귀가 스카우트 참여자 모집

17명 모집, 주민 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 업무 수행

금천구는 늦은 밤 귀가하는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17명이며, 최종 선발된 스카우트 대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5개 권역(문성지구대, 백산지구대, 가산파출소, 독산파출소, 금천파출소)을 거점으로 해서 여성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늦은 시간 귀가 지원과 범죄 취약지역 순찰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23.2.6.)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금천구민으로서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다. 공고일 현재 취업 상태인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2월 9일부터 15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구청 7층 통합복지상담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는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운영한다.

서비스를 받고 싶은 구민은 장소 도착 30분 전 '안심이앱' 또는 120다산콜이나 금천구 스카우트 상황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귀가 지원과 우범지역 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대원에 많은 지원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송파의 스마트한 사물주소판,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확대

지난해 생활정보 담은 '스마트 사물주소판' 도입...401개 정류장에 설치

송파구가 버스정류장 위치와 관광 정보 등 생활편의 정보가 담긴 스마트 사물주소판을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확대 설치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관내 401곳 버스정류장에서 사물주소와 함께 '송파정보마당'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생활편의를 돕고 있다. 송파정보마당은 QR코드를 통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버스 운행 정보는 물론 주변 관광 정보, 화장실·음식점·약국 위치, 구급신고 등 12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송파정보마당 이용 빈도를 확인한 결과, 정류장과 현 위치 확인 등 버스 이용을 위한 정보 확인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후 모범음식점, 관광정보, 화장실 위치, 약국 정보, 구청소식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구민 박 모씨(29세)는 "버스 도착 안내기 화면이 고장 났을 때 스마트사물주소판 QR코드를 스캔해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다"고 이용 소감을 전했다.

이에 구는 올해 스마트 사물주소판을 마을버스 정류장 29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송파구 마을버스는 지난해 12월 15일 개통해 3개 노선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정류장에 버스 도착 안내기가 없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다.



구는 스마트 사물주소판 설치로 버스 운행 정보 등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스마트 사물주소판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 첨단기술이 접목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서초구, 반짝이는 아이디어 펼칠 '청년 미디어 크리에이터' 모여라

서울 서초구는 청년들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1인 미디어 관련 취업·창업으로 연결하는 '서초구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서초구 거주 청년이며, 기본과정 9, 10, 11기 각 20명 및 심화과정 10명 등 총 7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기본 교육과정은 3월부터 7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생의 출석 부담을 줄이고자 평일반, 주말반 등 교육생의 선호도에 따라 구성하며, 심화과정은 8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미디어 크리에이터가 되는 기본과정 교육은 약 총 13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미디어 콘텐츠 기획, 영상 촬영과 편집 등이 주요 과정이다.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수강생들은 심화과정 교육에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심화과정은 13주간 진행하며 영상촬영과 편집에 관한 고급 스킬뿐만 아니라 실전에 필요한 전략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홍보 전략, 현지 크리에이터에게 듣는 1:1 멘토링 등 실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구는 이달 말일까지 구글폼을 이용한 QR코드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 접수를 실시한 후, 내달 수강생 모집시 수요조사 접수자에게 개별 문자발송 예정이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 후 합격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면접을 진행 후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접수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교육에는 총 72명이 참여했으며, 기본과정 3회 및 심화과정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영상 실전 편집기술 등을 익히며 채널성장 방안 및 수익화 전략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유명 크리에이터와의 토크 콘서트도 실시하고 중간·최종 과제 상영회를 실시하는 등 수강생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운영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취업지원전략으로 높은 취업의 벽에 방황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은평구, 올해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 확보

3년 연속 공모 선정, 성과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서울 자치구 유일

서울 은평구는 올해 고용노동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3천 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높여 취업으로 연결하는 공모사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올해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 3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은평구는 한 번도 어려운 공모 선정을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달성했다. 3년 연속 공모 선정과 함께 성과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를 이룬 기관은 서울 자치구 중 은평이 유일하다.

구는 올해 사업을 청년 수요에 맞게 1개월 단기와 5개월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눠 추진한다. 청년에게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서울청년센터 '은평 오랑'에서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과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총 200명으로 단기 75명, 중장기 125명이다. 구는 최근 사업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른 수행기관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에게 인센티브 50만 원을 제공한다.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 원, 인센티브 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시금 취업에 도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울 중구, 찾아가는 모기 유충 구제사업 실시

서울 중구가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기 사전 박멸에 나선다.

중구 보건소는 말리리아, 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개체 수를 대폭 줄이기 위해 월동 모기의 유충 시기인 2~4월 집중적으로 유충구제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기가 주로 산란하는 정화조, 하수구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은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투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소규모주택(단독·빌라·연립)에 직접 방문하여 유충구제제를 투여한다. 개별 주택에 찾아가 방역 활동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다.

외부에 노출된 정화조, 어린이집 및 경로당 114곳 등 방역 취약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강력한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동절기와 해빙기에는 모기가 추위를 피해 지하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서식해 효율적인 방역작업이 가능하고, 모기 유충 1마리를 없애면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 "개별방역이 쉽지 않은 소규모 주택가를 중심으로 미리 모기 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하여, 이번 여름 모기 때문에 잠 설치지는 일 없으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경기도, 2023 문화누리카드 1인당 11만 원 지원

-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8만 1,673명 지원
- ▶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자동 재충전 진행

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약 529억 원을 투입해 약 48만 1,673명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발급대상자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발급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한 사용자는 수급자격을 유지하였을 경우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어 더욱 편리하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여부는 주민센터/누리집/모바일앱/고객센터 ARS(1544-3412)를 통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 고객센터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이전인 카드 보유자, 2022년 기준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들은 자동 재충전이 진행되지 않는다.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개인충전금 제외)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정보 및 사용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주소: www.mnuri.kr / 고객센터 전화: 1544-3412)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맹점 발굴, 이벤트, 기획 프로그램(슈퍼맨 프로젝트,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이벤트·할인 혜택·프로그램 정보는 네이버카페(경기문화누리) 및 카카오톡 채널(경기문화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문화나눔센터 031-296-1654~6) 조혜영/기자



경주, (재)문화엑스포-해병대 1사단, 문화로 소통하다

- 모범장병 및 군 가족 경주엑스포대공원 관람지원 및 친선교류
- 공공행사 군악대 공연 및 장병들의 재능기부 참여 등 문화소통

(재)문화엑스포는 지난 8일 오후, 해병대 1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모범장병 국내시찰 지원 및 친선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해병대 1사단은 지난해 11월 20일 대령 장갑차를 동원해 주민 구조작업을 펼쳐 국민의 안전을 지켜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날 협약은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의욕고취와 복지여건 향상 및 문화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재)문화엑스포 류희림 대표와 정규식 사무총장, 해병대 임성근(소장) 1사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재)문화엑스포는 해병대 1사단 모범장병(군 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경주엑스포대공원 관람 지원(연6회)과 ▲장병 복지 및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병대 1사단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리는 공공목적 행사시 군악대 공연 및 ▲문화소통을 위한 장병들의 재능기부 참여 등 친선교류 행사를(단 훈련 및 행사 등 부대여건 제한시 불가) 제공하기로 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주엑스포대공원의 멋진 볼거리를 관람할 수 있게 된 것을 비롯하여



러 가지 혜택 제공으로,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무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주엑스포대공원 홍보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앞으로 장병들과 가족들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경주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류희림 (재)문화엑스포 대표는 "천년전 신라는 임전무퇴의 화랑이 있어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고 현재의 대한민국은 임전무퇴의 해병대가 있어 국가의 평화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고 있다"며 "화랑의 일과 신라의 문화가 녹아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해병대 1사단 장병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 또한 장병들이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경험도 쌓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수원SK아트리움은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현광) 수원SK아트리움은 오는 25일까지 무대 기술 현장실습 4기 교육을 진행한다. '수원SK아트리움 무대기술 현장실습'은 수원시 거주자 중 공연 관련학과, 수도권 소재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무대기술을 현장에서 실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료생은 기획·대관 공연 시 무대전문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번 4기 교육은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수원제1야외음악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3주간 진행된다. 수원SK아트리움 무대감독들이 14명의 실습생에게 공연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가르치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칭한다. ▲무대테크니컬라이더 작성 요령 ▲무대기계 콘솔 제어 및 프로그래밍 ▲조명 콘솔 조작방법 및 조명기기 사용 ▲음향 사운드편집 및 측정프로그램 사용 ▲프로젝트 활용 등 현장성과 안전성을 입각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5일 3시에는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결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교육생들이 공연 기획부터 철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출연팀으로는 오민경 예술감독의 MIN, 위열단장의 The Team Laho, 흥대에서 활동 중인 밴드 OLB가 참여한다. 결과발표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수원SK아트리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매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도 선착순 입장할 수 있다. 수원SK아트리움 관계자는 "이번 4기 교육은 전공자뿐만 아니라 무대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일반학과 대학생들까지 참여했다. 교육생들은 자기개발과 무대 기술 습득에 크게 만족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 수료생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SK아트리움 공연 스태프로 150회 이상 참여했고, 외부 공연장에서도 스태프 등으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인턴십, 계약직 등으로 전국 유명 공연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의: 공연부 250-5336) 조혜영/기자

영양군, 2023년 다문화가족 스키캠프 개최



영양군에서는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지역 내 다문화가족 60여명이 참여하는 2박 3일 일정의 '2023년 영양군 다문화가족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족이 참여하여 겨울철 대표 스포츠 스키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문화체험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가족애를 키워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문 강사의 강습 및 체험, 눈썰매

체험, 곤돌라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미셀(여, 35세, 송하리 소재)씨는 "난생처음 스키를 타본다며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며, "우리 다문화 가정에 이리 좋은 기회를 부여해 주신 오도창 군수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도원 생태공원사업소장은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지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가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이처럼 소외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스키캠프 개최를 추진한 영양군의 소통행보에 깊은 공감을 가져보며, 이런 기회가 1회성에 그치지 말고 내년에도 추진돼 지기를 주문드려 본다. 윤근수/기자

GH, '일회용품 OUT' 다회용기 실천 문화 조성 앞장

-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사옥 카페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 다회용 컵으로 전환
-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 도모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중 최초로 사내 다회용기 사용체계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다회용기 사용체계'는 일회용품 대신 지역자활센터에서 제공한 다회용 컵을 사용한 후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체계적인 순환시스템을 말한다. GH는 사옥 내 카페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전환하였고, 다회용 컵 대여·세척 대행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였다. 이번 다회용기 사용체계 구축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사옥 내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내달 현장사업



의성군,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선수단 출정식



의성군은 지난 8일, 의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의성컬링협회 관계자,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의성군 컬링 선수단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2월 10일부터 20일(본대회 2. 17. ~ 20.)까지 경기도 의성원·선수단 등 4,800여명이 참가하며,

의성군에서는 컬링 선수단 9개팀,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수단은 우수한 성적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고의 빙질을 자랑하는 의성컬링센터에서 매일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 체력과 조직력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려 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

기 바라며, 힘차게 도전하는 선수단들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동계 스포츠 "컬링의 고장, 의성"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바탕으로, 의성군컬링팀을 창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진군-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 회의



울진군은 오는 4월 열리는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7일 울진군 도민체육추진단, 경상북도 체육진흥과, 도 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 진행 상황과 종목별 경기장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최식 당일 교통 흐름과 주차장 현황 등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또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개최식 주제 및 성과 봉송 등 연출 구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관람객 및 선수단 이동 동선, 개최식

메인 무대 등 시설물 설치, 멀티미디어 활용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연출안을 협의했으며 2월 중순 공개행사 연출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군 관계자와 도 관계자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공유하여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울진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육상 등 30개 종목이 펼쳐질 예정이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수상!

- 경북 대표 노인복지모델 『경로당행복선생님』 최우수 사업 선정
- 경로당 현장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전국적으로 인정 받아

경북도는 지난 8일,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1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17개 시도를 포함, 28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역사회 돌봄 등 8개 영역을 심사했으며 경북도는 대표 노인복지모델인 경로당행복선생님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1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 인프라 등으로 고령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지방자치단체

에 수여하는 상이다.

『경로당 행복선생님』사업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경북도의 대표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으로 그동안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던 경로당에 '행복선생님'을 배치해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교육, 복지를 아우르는 현장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0억원 증가한 190억원의 예산을 편성, 경로당 행복선생님 20명을 증원하고,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경로당 어르신 복지서비스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5년차에 접어들어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이 어



르신들 일상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건강고령친화도시로 어르신들

이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에 새로운 김치 브랜드 탄생 예고 "52억원 규모 김치공장 들어선다"

안동시, 안동명가 영농조합법인과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안동에 새로운 김치 브랜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7일 시장실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신연옥 안동명가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2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안동명가 영농조합법인(2021. 7. 설립)은 일직면 원호리 일원에 약 52억 원을 투자해 김치 제조·가공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투자가 완료되면 이 공장에서는 연간 약 5,180톤의 김치를 생산한다. 더불어 약 70여 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신연옥 대표는 "현재 국내 포장김치 시장 규모는 약 1조 3,90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김치 소비 증가세로 김치산업의 전망이 밝고, 김치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수급함으로써 농가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대표 김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복지 사각지대 난방비 지원 강화' 포항시, 한파 녹이는 선제적 지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운영 예산 추가 지원, 경로당 재해구호기금 지원 예정

포항시는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역 노인·장애인·아동 시설을 대상으로 1~2월 두 달간에 걸쳐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비를 추가 지원했다.

시설별 지원 현황을 보면 양로시설 2개소에 월 50만 원씩 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8개소에 월 30만 원씩 60만 원을 추가 지원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67개소에는 월 30만 원씩 6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에너지 한파에 시름이 깊어진 사회복지시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이와 함께 2월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자격을 취득 중인 수급자 2만 1,900여 가구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가구당 10만 원의 긴급 난방비를 수급비 수령 계좌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3월 중 경로당(한파집터) 618개소에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으로 개소당 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명환 복지국장은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영주시,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체제 돌입

8일,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 개최



경북 영주시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체제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8일 박남서 시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회의'에서 정부 정책방향과 시 현안사업을 연계한 신규사업을 중점 발굴하고,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활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날 전략회의를 통해 2024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으로 68개 사업 1481억원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과의 적합도,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종합장사시설 건립 53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45억원 △시가지 일주 보행로길 설치사업 40억원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30억원 등 44개 사업 457억원 규모이다.

계속사업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70억원 △영주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58억원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47억원 △노후 가중정수장 정비사업 35억원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구축사업 27억원 등 24개 사업 1024억원으로 안정적 국비 확보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남서 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투자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2023년도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 박차

의성군은 올해 하수도 관련시설 확충사업 등에 국비 포함 31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장 운영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사 중인 안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안계면 위양리, 교촌리 지역과 단말, 단북, 구천면 소재지 지역으로 처리구역을 확장하면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700톤 증설하는 사업이며, 비안동부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비안면 이두리, 동부리, 서부리 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이다. 추진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국비 전액을 확보함으로써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금성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금성면 학미리, 초전리, 구련리, 청로리까지 처리구역을 확장하는 한편 가음

면 소재지까지 관로를 연장 설치하고 있으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국비가 확보된 안평박곡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착공할 예정으로 안평면 박곡리, 창길리, 괴산리, 기도리, 마전리에도 하수관로 설치가 시작된다. 추진중인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5년에는 하수도 보급률이 51%에서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신평면과 안사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 소재지에 하수도가 보급된다.

또 올해 설계 착수 예정인 의성3단계하수관로정비사업과 신평교안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의성치선리, 팔성리, 원당리를 비롯한 봉양면 길천리, 문흥리, 분토리 지역과 신평면 소재지 지역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며, 2024년 국비확보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 추진함으로써 최대

한 많은 군민들이 하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의성군은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해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하수처리장을 실시간 감시 제어하는 스마트하수처리장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자산 목록을 DB화 하는 스마트하수도자산관리체계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또 정부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추어 의성하수처리장에 태양광설치사업과 고효율변압기교체사업에도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전력 자립률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더 많은 군민들에게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올해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하수 미처리구역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예천군, 숲과 함께하는 힐링 예천! 280억 원 예산 투입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만들기 박차, 산림 사업에 활력 불어넣어

예천군은 산림 수요 증가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280억 원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들여 공사유림 877ha 규모 숲 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84ha에 조림사업으로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경쟁력 있는 숲 조성에 역점을 둔다.

임산물 생산·가공 유통체계 구축,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22억 원을 편성하고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

산·유통기반조성사업 △백두대간 지원 사업 △지역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 등 예천만의 특색 있는 임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은 160여 임가가 신청해 3억6천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계속 지급할 계획이며 예천읍 남본리 폐철도부지에 예누리길(1.2km)을 59억 원 사업비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조성한다.

예천읍 흑운산~봉덕산 등산로 힐링 공간 사업과 달그리마을 숲길 사업을 12억 원 사업비로 올해 중 완료해 군민들에게 힐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예천읍 남산을 정비하는 공원관리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과 문화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호명면 산합리 83번지 일원 패밀리파크 조성에 95억 원을 들여 물놀이시설, 캠핑장, 농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해 오는 7월 개장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패밀리파크와 연계해 수변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80억 원

으로 미세먼지 저감 수목 식재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신도시를 녹색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 휴양 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해 예천목재문화체험장에 실외 정원을 조성했으며 올해는 더 다양한 목공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부터 휴양까지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숲·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군민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힐링 예천군을 만들어 산림이 주민들의 삶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해 조성한 도청 신도시 숲속 놀이터는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되는 등 명품 신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2023년도 봄철 산불감시대 발대식 개최

산불없는 봉화군 만들기 최선!

봉화군은 지난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과 읍면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감시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 ~ 5.15)을 맞아 올해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활동과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열게 됐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겨울철과 봄철에 대기가 무척 건조할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을 동반해 대형 산불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울진을 포함해 봉화, 안동, 영덕, 예천 등 인근 시군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많은 산림이 소실된 바 있다.

산불은 눈·발두령이나 농산부산물 소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의 전열기 누전과 화목보



일러 과열, 불씨가 남아 있는 재 투기, 쓰레기 소각 등 생활권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군민과 감시원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없는 봉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산불로부터 우리 군의 성장동력인 귀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금자기자

경북 보훈단체협의회, 영양군 충혼탑 합동 참배



경북 보훈단체협의회는 7일 오전 11시 영양군 호국공원 내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

이번 행사는 오도창 영양군수, 이광희 경북보훈단체협의회장과 회원, 영양군 보훈단체장, 김법수 경북북부보훈지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와 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경북 보훈단체협의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경북 23개 시군을 순회하며 충혼탑 참배 행사를 갖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덕분"이라며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대외협력관 위촉으로 중앙부처 협력 강화

국도비 확보, 행정, 문화관광 등 2년간 무보수로 활동

영덕군은 지난 8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김광열 영덕군수와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군 대외협력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영덕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대외협력관 제도는 행정, 문화관광, 기업, 농수산업, 통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대외협력관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대외협력관 중 대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서철현 교수는 경상북도 지역축제 자문위원이자 축제 전문가로, 지역 내 주요 축제에 대해 자문을 해오고 있다.

특히, 서 교수는 영덕대계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는 데 공헌했으며, 향후 문화관광 분야에서 영덕군에 주요한 조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공무원인재개발연구소 가재영 소장은 행안부가 선정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천안시청과 충남도청에서 근무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혁신과 적극행정 등 영덕군의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끝으로, 법무법인 더블에이전시 박세희 송무팀장과 수별에이전시 장지훈



▲영덕군 대외협력관 위촉식. 왼쪽부터 서철현 교수, 가재영 소장, 김광열 영덕군수, 장지훈, 박세희

대표는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재력으로, 영덕군의 국·도비 사업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노하우가 도입되어야만 영덕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이룰 수 있다"며,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 어미가 밖에서 조고 병아리가 안에서 응하듯이 대외협력관의 선견지명과 모범이 영덕군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모든 승객 공짜' 전국 최초 청송 무료버스, 보편복지·탄소중립·경제활성화 1석 3조 효과 톡톡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모든 승객 공짜' 무료버스가 보편복지·탄소중립·경제활성화의 1석 3조 효과를 톡톡히 보이고 있다.

군은 2023년 새해 첫날부터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은 물론 관광객 등 청송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의 관내 버스이용 전면 무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현재 보편복지 향상, 탄소중립 환경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보이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청송버스(주)에서는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후 버스 이용객이 약 20%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비용적인 측면과 버스를 탈 때 요금지불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버스 타는 것을 꺼렸던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바깥출입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전에는 병원 한 번 가려면 일부러 짐을 짰다가 다른 불일 있으면 가곤 했는데, 이제는 몸이 좀 아프다 싶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니까 아픈 것도 덜하고 멀리 사는 아들내이의 걱정도 많이 줄었다"고 말했으며, 장날에 버스를 이용한 주민은 "전



에는 장바구니를 차에 올리고 잔돈 꺼내고 이리다 보면 마음도 급하고 비틀거리기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운전 기사님이 짐 옮기는 것도 도와준다"며 좋아했다.

이러한 평가는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겠다는 청송군의 무료버스 도입 취지와도 잘 부합되는 대목이다.

특히 아직은 대부분의 승객이 지역민이지만 앞으로 봄철 관광객들의 방문이 시작되면 슬로시티 청송에서 버스로 관광하는 새로운 여행트렌드가

자리 잡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산소카페 청송군'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의 호응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시로 버스와 터미널을 점검하여 쾌적한 버스이용 환경을 만들고, 운전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도 더욱 철저하게 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학교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교실
- 학교기본운영비의 부족난을 해소 등 학교의 재정 부담 경감



경북교육청은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학교의 재정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와 대성청정에너지에서 공개한 공공요금 단가표에 의하면 전년 대비 교육용 전기요금은 25%, 가스요금은 3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학년도부터 전기요금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추가지원사업으로 분리해 매년 학교별 실소요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해도 인상률을 반영한 실소요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학년도에도 별도로 전기요금 349억 원을 지원했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공공요금 인상분 68억여 원을 확보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교기본운영비의 부족난을 해소하는 등 학교의 재정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교육청,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편입추진단' 회의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6일, 오는 7월 1일자로 편입되는 군위군 소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안정적인 인수를 위해 '편입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해 군위군 편입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에서 검토된 대구·경북 간 교육제도 및 학생지원 방식 등이 상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군위군의 기존 교육사업의 연속성 유지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이행 방안과 후속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만 시행하는 사무 43건, 경북도교육청(군위)만 시행하는 사무 19건, 동일 사무지만 운영상 차이가 있는 사무 109건 등 총 171건 사무에 대한 운영 방안과 나이스·K-에듀파인 등 전산·정보시스템 22개 분야별 정비 일정 및 방법 등 군위군 소재의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사무인수, 예산 편성, 각종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 이관, 자치법규 정비 등 각 부서별로 준비하고 있는 세부 업무 추진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군위 학생들이 기존에 받았던 교육적 수혜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구시교육청에서 특성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수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예정



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면밀한 인수 준비를 통해 군위군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7월 이후 안정적으로 교육적 수혜는 받으며, 대구미래역량교육 시스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 소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현황은 군위교육지원청과 삼국유사군위도서관, 초등학교 7교(병설유치원 6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총 1,023명으로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윤근수기자

경남교육청, 새학년 맞이 학교 무선망 현장 지원

무선 속도 점검 등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경상남도교육청은 아이북 활용 수업 활성화를 위해 60개교를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학교 무선망(와이파이)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새학년을 맞이하여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상시 점검과 현장 점검을 병행한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다.

18개 교육지원청과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학교로 직접 찾아가 무선망 속도 등을정밀 진단하고 장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디지털 기반 수

업을 활성화하고 학교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이다.

또한, 3월 학기 초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윤희 교육정보과장은 "장소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수업이 가능하며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 함양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새해 첫 읍면동장 회의서 “신뢰 행정은 읍면동장으로부터” 강조

경주시, 읍면동 주요 현안 점검...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방안 모색



주낙영 경주시장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읍면동장회의에서 “행정 신뢰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읍면동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며 집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이끌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8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주낙영 시장 주재로 새해 첫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23개 읍면동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국·소·본부장과 읍면동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새해 정기 인사로 지난달 10명의 읍면동장이 교체된 만큼, 누수 없는 읍면동 행정을 위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겸했다.

이날 회의는 읍면동별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 갑포3리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천천읍 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 외동읍 입실리 영수교 인도설치 사업, 황성동 작

은 공원 프로젝트 사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읍면동장 회의에서 황성동은 경주 도심의 대표적 흉물로 꼽히는 속칭 ‘황성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과 관련해 보고했다.

시는 황성동 시유지 내 난립한 분묘를 대부분을 이장 완료하고, 분묘가 사라진 자리에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주차면수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무연분묘의 연구자를 찾기 위해 수차례 분묘 개장(改葬) 공고를 게시하며 분묘 157기를 이장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읍면동 주요시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행복 추구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삶속으로 더 가까이 더 친밀한 행정을 펼쳐 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주민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민의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혹한기 동파 및 도로결빙, 동절기 안전사고 유의, 산불 예방 등 현장을 촘촘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윤타용기자

통영시, 영농설계를 위한 농업인들 배움열기 가득

천영기 통영시장,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 농업인들 격려



통영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394명의 농업인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전문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참석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한 텃밭채소 과정은 텃밭 재배기술, 주요 병해충 방제, 생리장애 대책을 교육했는데 계획 인원 50명보다 많은 83명이 참여해 기존 농업인뿐 아니라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감귤과정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과 해거리 방지를 위한 이론교육을 진행한 뒤 주산지인 육지도 감귤 농장에서 현장실습을

병행 실시해 영농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7일 유용미생물 과정에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참석해 “영농자재 및 난방비 가격 인상, 이상 기후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농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영농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교육으로 배운 영농 정보를 현장에 잘 접목해 수확기에 웃을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남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2월 14일까지 딸기(2. 8.), 옥수수(2. 9.), 농업기계안전(2. 10.), 공익직불(2. 13.), 고구마(2. 14.)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준기자

경남도-18개 시군 하나로 뭉치니 더 안전하네!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 본격 업무 돌입

경남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와 18개 시군의 상시적인 협력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 사무국’을 구성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도는 지난 1월 창립시, 거제시 소속 공무원 각 1명을 파견받아 원팀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도-시군 통합형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분야 공동사무를 비롯해, 민간분야 중대재해 감축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도와 시군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별개의 사업장이지만, 업무환경이 유사해 원팀사무국을 운영해 정보 공유와 공동사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2024년을 대비하여 민간부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등 중대재해예방에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원팀 사무국에서는 도와 각 시군의 재해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재해를 방지하고, 고위험공정(별목, 폐기물 등) 합동 점검을 추진해 숨어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도와 시군 공동 매뉴얼도 제작한다. 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현업업무 6종(경비, 도로보수, 환경미화, 공익·녹지, 산림조사·보호, 조리)과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중대시민재해 민간 적용 안내 등 분야별 실무에 적용가능한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이다.

도-시군 워크숍 및 총조사 교육도 추진한다. 도와 각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회의를 통해 공동사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재해 예방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민간 지원 기반도 구축한다.

법이 적용되는 민간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 홍보물 배부와 행정지도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에 대해 홍보를 추진하고, 도-시군 합동 캠페인, 도내 기관장 중대재해 예방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철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 예방 도-시군 원팀사무국은 도와 시군 통합형 재해예방 시스템이자 상시적 협력 모델로, 국내 최초로 시도한 사례다”며 “도와 시군이 모범 고용주이자 예방의 주체로,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공동 견인하는데 도-시군 원팀 사무국 운영이 상승(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고, 민간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3대 전략 13개 중점과제인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감축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장재현기자

부산스포츠과학센터 본격 운영 시작!

국가대표 선수들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 극대화 기대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회장 장인화)는 오는 9일 오후 4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1층에서 ‘부산스포츠과학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 각 회원종목단체 회장, 16개 구·군 체육회장, 체육회 임원 및 대학교수, 감독 등 23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지역 내 선수들을 대상으로 체계적·과학적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 발굴 및 전문체육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부산시와 시 체육회의 상호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5억 8천만 원 규모의 전문 장비와 매년 3억 3천만 원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에는 ▲스포츠 생리·역학·심리, 측정 등 분야별 박사급 연구진, 측정요원, 전문 트레이너 등 전문인력 및 ▲운동부하검사, 동측성근관절검사,



질산분석, 영상분석 등 29종의 최첨단 장비가 마련돼있다. 또한 ▲운동능력을 측정·분석하여 지역선수들에게 과학적인 체력분석 및 개인맞춤형 운동처방과 심리검사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도자, 선수, 학부모

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스포츠 과학 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전국 최초로 스포츠헬스케어센터를 연계 운영하여 스포츠과학을 활용한 선수들의 맞춤형 처방을 통한 경기력 향

상과 부상선수들의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기반으로 종목별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전국 최초 스포츠과학센터 부설 스포츠헬스케어센터와의 선순환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우수 선수들의 컨디션 회복과 종목별 맞춤형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의 재능있는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적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역 연구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시체육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송중진기자

대구 의료기기,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769만 불 계약 달성!

중동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1개사 참가 지원, 5,880만 불 상담 실적 올려

대구는 2023년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Arab Health 2023)에 ‘대구 공동관’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총 1,769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렸다.

대구는 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48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Arab Health 2023)’에 대구 공동관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총 2,934건, 5,880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1,769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구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케이메디허브 연계협력 사업 지원 기업을 포함해 △(주)3H △(주)파인메딕스 △(주)인코아 △(주)인트인 △(주)에드플러스 △(주)가보즈 △(주)나눔컴퍼니 △(주)원소프트다임 △(주)멘티스 △인텔로스(주) △(주)엔도비전 등 지역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Arab Health)는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카테고리별 23개의 전시회에 68개 국가에서 4,0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시회 기간 중 약 130,000여 명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

문했다.

국내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75개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15개사), 한국광산업진흥회(12개사)에서 공동관을 구성하는 등 개별참가기업(78개사)을 포함한 총 203개 한국기업이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해 중동 및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참가기업 가운데 대구시 스타기업인 스마트 지압 침대를 생산하는 (주)3H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UAE, 이란, 카타르, 인도 등의 기업들과 총 13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요청받았고, 또한 820HP 제품은 UAE, 이란, 멕시코, 오만, 시리아 등의 기업과 독점 총판 계약을 맺는 등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대구시 프리스타트업인 (주)파인메딕스는 내시경 시술기구(clear tip 등)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기존 바이어들과의 수출 확대 계약을 성사시켰고, 카타르, 파키스탄,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과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논의했다. (주)인트인은 오부정 자본분석기, 배란분석기 등의 제품이



대해 이라크와 3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지역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참가기업들은 활발한 상담을 통해 소규모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 등 향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망을 밝게 했다.

서귀용 대구시 의료산업과장은 “세계 의료시장의 혁신과 트렌드를

한곳에 확인할 수 있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 대구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해외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유용미생물



통영시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394명의 농업인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전문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참석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한 텃밭채소 과정은 텃밭 재배기술, 주요 병해충 방제, 생리장애 대책을 교육했는데 계획 인원 50명보다 많은 83명이 참여해 기존 농업인뿐 아니라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감귤과정은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생산과 해거리 방지를 위한 이론교육을 진행한 뒤 주산지인 육지도 감귤 농장에서 현장실습을

병행 실시해 영농 애로사항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7일 유용미생물 과정에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참석해 “영농자재 및 난방비 가격 인상, 이상 기후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농업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 영농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란다”며, 이번 교육으로 배운 영농 정보를 현장에 잘 접목해 수확기에 웃을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남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2월 14일까지 딸기(2. 8.), 옥수수(2. 9.), 농업기계안전(2. 10.), 공익직불(2. 13.), 고구마(2. 14.)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준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2023년 공감도정 임실군에서 첫 스타트 “놀라운 변화, 천만관광 임실시대 함께 열겠다”

일일 명예 임실군수 ‘군청 속으로, 민생 속으로, 도민 속으로’... 더 특별한 전북시대

‘함께 혁신, 함께 성공’으로 공감도정을 앞세운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7일 새해 첫 시·군 방문지역으로 임실군을 찾아 더 특별한 전북시대와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민선 8기 2년 차를 맞은 김 지사의 첫 번째 행선지인 임실군은 임실N치즈축제 대성공과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 개통,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등 핫한 관광 이슈를 선점하며 전북 관광을 주도할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임실군에 방문한 김 지사는 일일 명예 임실군수가 되어 ‘군청 속으로, 민생 속으로, 도민 속으로’ 세 가지 주제로 각계각층 다양한 지역민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한 군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군청 속으로’는 임실군청 업무보고와 현안토론, MZ세대 공무원과 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임실군은 심 민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청 업무보고에서 ▲옥정호 명품생태관광지 조성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장미공원, 농촌테마공원 보강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및 애견캠핑장 등 반려산업 메카 ▲성수산·사선대 힐링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영 ▲임실 제2농공단지 첨단산업 유치 및 오수 제2농공단지 분양, 오수 제3농공단지 조성 등 경제활성화 ▲임실·오수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안 토론회에서는 ▲섬진강댐 건설(1965년)로 아픔을 겪은 운암면 쌍암지구 주민들의 안정적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쌍암지구 앞들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 토하마을 공모의 대응 전략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위한 임실군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전문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한 전라북도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토하마을 공모사업은 관심이 큰 사업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과학영농시설 건립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다비체육센터는 범위 내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임실군의 공공동물장묘시설인 오수팻추모공원 운영을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여 할인 등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아이디어도 제공했다.

김 지사는 일선 공무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청원과의 만남’의 자리에서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여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도정 철학 특강과 함께 MZ세대 공무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MZ세대 공무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분야 등 전북도 주요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임실군 준비 대응 사항을 질의응답 하는 등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민생 속으로’는 김 지사와 심 군수가 함께 임실군 대표 향토기업인 나래식품(주)을 찾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민생현장 간담으로 진행됐다.

나래식품(주)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근로자 확보가 어려운데, 간신히 확보한 신규근로자마저 중도 퇴사는 경우가 많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심 군수는 “올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우수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김 지사는 “기업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도민 속으로’에서는 임실군 주력사업인 반려동물 관련자를 직접 만나 생생한 지역 현안을 듣는 오찬 간담 형식으로 열렸다.

박세근 오수 의견문화체육위원회장은 “전라북도와 임실군이 반려동물지



원센터 및 반려동물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반려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에 심 군수는 “반려동물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인 김관영 지사님과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나절에 걸친 공감도정을 마친 김 지사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성과로

보여주는 임실군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특례 규정 발굴에 힘써달라”며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전북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군수는 “새해 들어 시·군 방문으로 가장 먼저 임실군을 찾아주시는 김관영 지사님께 군민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탤런트 김경애, 운봉읍 홍보대사로 위촉

운봉읍(읍장 양재우)은 6일 오후 전북 남원시 운봉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탤런트 김경애 씨를 운봉읍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그는 올해부터 운봉읍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김경애는 남원시에서 태어나 운봉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다.

1996년 영화 ‘나는 매국노’로 데뷔 후,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화이트데이: 부서진 결계’, ‘드라마 ‘동이’, ‘아인시대’, ‘전원일기’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중이고, 현재 극단 여인극장 대표직을 맡고 있다.

김경애는 이날 “운봉읍은 내가 자란 곳이라 특별한 지역”이며 “운봉읍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영광이다. 운봉읍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양재우 읍장은 “운봉읍에는 질 좋은 농·특산물과 볼거리가 가득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아쉬웠다. 김경애 씨가 그간 쌓아온 명성으로 운봉읍 홍보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기술창업·혁신성장 요람’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첫삽’

주시 팔복동 첨단벤처단지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 혁신성장을 이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된다.

시는 8일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중기부와 전북도 관계자, 입주기업 관계자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입주 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는 오는 2024년 8월까지 국비 160억 원 등 총 28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9980㎡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물 지하 1층은 주차장과 전기실, 기계실 등이 들어선다. 1층에는 중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을 위한 입주시설과 제조창업 구축공간 등이 설치된다.

또한 건물 2층~4층에는 기업입주



시설과 교육실, 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첨단벤처단지 전주혁신창업허브와 연계해 기술제조 창업과 성장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주기술창업혁신지원센터가 가동되면 기술창업기업과 성장을 꿈꾸는 40여 개 창업기업이 입주해 꿈을 키울 수 있어 시민들을 위한 500여 개 규모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창업초기단계 이후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한 재직자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정책

을 제공함으로써 전북의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플랫폼이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첨단벤처단지 내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조성지 맞은편에 중소·창업기업의 든든한 터전인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전주혁신창업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요람이 될 지하2층~지상 5층 규모의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혁신창업허브와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팔복동 일대를 강한경제 전주를 이끌어갈 산업 거점 공간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 동력을 키우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성장도 뒷받침해 글로벌 강소기업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일/기자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공고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고자 [전기사업법] 제 7조 제5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배필남외 1인

2023년 2월 10일

[발전사업 공고 안내]

1.사업의 개요

- 사업명: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 위치: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617-2
- 면적:18,246㎡

2.사업의 내용

| 명칭 | 성명 | 발전설비용량(KW) | 사업개시예정 |
|---------|-----|------------|----------|
| 운지1호태양광 | 배필남 | 99.12 | 2027년 2월 |
| 운지2호태양광 | 배필남 | 99.12 | 2027년 2월 |
| 운지3호태양광 | 배필남 | 399.12 | 2027년 2월 |
| 운지4호태양광 | 박영석 | 99.12 | 2027년 2월 |
| 운지5호태양광 | 박영석 | 99.12 | 2027년 2월 |
| 운지6호태양광 | 박영석 | 299.12 | 2027년 2월 |

*사업운영기간 -2027년 2월 ~ 2046년 2월

3.의견 제출에 관한사항

-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서면제출

* 기타 사항은 남원시청 일자리 경제과 (063.620.6350)문의

문화매일

정도언론을 통한 국민과 인류가 행복한 세상구현!!

기사제보
TEL.1899-9659
FEX.02)2060-4147

광고문의
TEL.02)2612-2959

구독문의
TEL.1899-9659

영양군 YEONGYANG-GUN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담례품)

기부자 → 고향사랑기부금 (연500만원 한도) → 영양군 →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세액공제 (기부액 30%NI)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담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담례품 /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 담례품 ※ 담례품: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문의: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lovegyoung.go.kr

구례군, 동절기 혈액 확보 위해 사랑의 헌혈 실시

생명 살리는 '헌혈' 함께해요

전남 구례군은 2월 3일 구례군 의회 광장에서 동절기 정기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군민과 구례 설치 아이클생협 회원들이 점심시간을 활용한 자율적인 참여로 50여 명이 생명 살리기에 적극 참여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일일 혈액 보유량은 3.8일분으로, 이는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을 밑도는 수치로 혈액 수급 위기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번 '사랑의 헌혈 운동'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독감 유행, 학교 방학으로 급격히 감소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 생명 나눔 실천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했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안전한 헌혈을 위해 혈액검사와 문진을 진행하고, 최종 적격자만 헌혈할 수 있다. 최근 1개월 이내 해외 여행을 다녀온 자, 아스피린이나 항생제 등 약 복용자, 혈색소가 12.5 이하인 분들은 헌혈이 불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헌혈자의 편의를 위해 혈액 검사 결과 우편 발송을 중요하고 대한적십자사 누리집이나 앱(레드커넥트)을 통한 온라인 안내로 전환



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혈액은 보관 일수가 짧아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더욱 열심히 하고, 이웃사랑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전남도, 천일염 경쟁력·세계시장 진출 확대 지원

제품 개발·마케팅·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등 1억8천만원

전라남도는 우수한 품질의 전남 천일염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 2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천일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과 '천일염 수출용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영세한 천일염 수출업체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천일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7년째로, 용기 개발, 수출상품 개발 등으로 미국, 대만, 인도 등 다양한 국가에 꾸준한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세계시장 진출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2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3천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용기·포장 등 개발 및 품질 인증, 안전성 검사 비용 등 수출상품 개발과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비

용 등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천일염 수출 기반시설을 구축해 수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수출업체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 전남지역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천일염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미용품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천일염 수출용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천일염을 조미료 등 요리용 상품 개발을 넘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용도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다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3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2개 기업을 선정하고 각 6천만 원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천일염의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 기업을 발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며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장흥군, 지역 역사와 문화 자원 바로 세운다"

김성군수 "문화자원 계승·발전, 새로운 문화 장흥 창조하겠다"

장흥군이 지역의 역사를 담은 문화재의 원형복원과 보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국가 지정 25건, 전라남도 지정 57건 등 총 98건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에서 순천시, 나주시 다음으로 많은 문화재가 장흥에 있는 셈이다.

장흥군은 선사시대나 역사시대의 수많은 유적이 분포하는데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장흥댐 건설로 인해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며, 1988년에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진행, 2004년에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완성됐다.

올해는 고대 문화유적 조사 추진으로 장흥군 내 마한문화유적 규명을 위한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토대로 장흥군 내 마한 유적 분포 기초 용역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조선시대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오랑캐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체제인 봉수유적과 전라좌도만호호진인 회령진성도 발굴 복원을 추진 중이다.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꾸준



한 문화재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장흥군은 2023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국도비 예산으로 39억 원을 확보 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억 원 늘어난 예산 규모다.

국비 21억 원, 도비 18억 원으로 총 39억 원이 장흥군 국가지정, 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

재 보존정비 및 전통 불교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대월사 요사채 개축, 죽천사 사우, 내삼문 보수, 김응원 각벽비 단청보수 공사 등이 진행 중이다.

관산을 옥당리 일대 바우정이 고대 유적 문화층이 대규모 확인됨에 따라 2023년 도비를 확보하여 문화재 발굴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 천관사 내 불교태동지 규명 및 암자 분포 조사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탐사조사 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이외에도 문화재 재해 긴급보수 사업, 문화재 재난 안전 관리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문화 유적 발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 장흥군수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현재의 중요한 의무"라며, "지역문화 자원의 계승·발전을 통해 역사를 배우고 문화가 살아있는 새로운 장흥을 창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완도군, 해조류 기반 해양바이오 육성 본격화

완도군에서는 2월 7일 '해조류 기반 바이오 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 1단계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는 조선대학교 해양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에서 1단계 사업 추진 성과 보고 및 실험실 장비 구축 확인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춘성 센터장, 전남도 연구 바이오산업과 및 한국농수산대학교, 건양대학교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총 160억 원(국비 100, 지방비 50, 조선대기업 10)을 들여 조선대학교를 주축으로 총 11개 연구 기관이 참여해 해조류 기반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나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해조류의 기능성 및 유효 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식약처 인증 및 사업화 과정을 지원·컨설팅 해줄 수 있게 된다.

사업 1단계의 큰 성과는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국내 최초 해조류 기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와 유효성 평가·실증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여 해양바이오

육성 기반 시설을 갖춘 점이다.

이에 완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유효성 실증 센터에 실험 장비를 더 구축하고, 소재 개발, 원료 표준화, 유효성 평가, 사업화 지원 등 1단계 사업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조선대학교 김춘성 교수는 "해조류를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표준화, 유효성 평가,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이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해조류 유효성 평가와 소재 개발 플랫폼을 구축한 것이 1단계 큰 성과이다"라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 사업으로 해양바이오 기업에게 필수적인 연구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됐다"면서 "조선대와 함께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와 많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영을/기자

"영암의 붉은 황토로 빛나는 특별한 도예"

영암도예박물관은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상반기 생활도예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오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생활도예교실은 성인인 영암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재료비 별도)이다.

초보자를 위한 기초적인 도기 빚기와 장식기법을 토대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3월부터 12주간 운영된다.

군민의 문화활동 참여환경을 제공하여 지역민이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획된 생활도예교실은 지역의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2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간직한 국내 최초의 고화도 사유도기인 구름도기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도예박물관에서 매년 운영하고 있는 성인 대상 도예교실은 초보자를 위한 "생활도예교실"과 심화과정을 해당하는 "도예동아리" 강좌로 구분되며, 생활도예교실은 영암군민을 대

상으로 매년 2월, 8월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까지 각각 12주간 운영하고, 도예동아리는 1월에 모집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 도예교실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12월에 개최되는 작품전시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성인도예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도기박물관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민선 8기 필리핀·베트남 지자체 3곳과 업무협약 체결

나주시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정책이 순조롭다.

8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후 필리핀, 베트남 지자체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법무부로부터 올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205명을 배정받는 등 해마다 일손 부족에 고심해온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나주배원에농협이 선정되면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50명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나주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군이 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시는 근로자 숙소 비용 등 국·도비 포함, 예산 1억 4500만원을 확보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농협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를 최소 하루단위, 단기간 신청·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무부 지침에 따라 3~5개월 간 장기 고용형태로 일하는 기존 계절근로



제도화 차별화 된다.

하루 또는 수 일 동안만 일손이 필요한 소규모 농가, 시설 하우스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은 물론 근로자 임금 부담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에 힘입어 나주시는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255명을 도입·이용하게 된다. 전년 고용 실적(32명) 대비 약 8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시는 이번 달 안으로 베트남 177명, 필리핀 12명, 캄보디아 6명, 태국 1명 등 근로자 196명에 대한 사증 발급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설 원예 17곳, 과수 18곳, 기타 16곳 등 총 51농가 일손에 투입될 예정이다.

나주시 농촌인력센터 3곳(농어업회소·농협나주시지부·나주배원협)도 농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되면서 내국인 농촌 인력 중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는 전년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3000만원을 포함해 국·도비 1억755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센터는 농가에 맞춤형 작업자를 공

급하기 위한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 인력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는 센터로 신청하면 별도 중개 수수료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수송·숙박, 현장실습교육, 보험비, 작업반장수당 등을 지원한다.

나주배원협 중개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등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 배 작업 특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영농작업반을 운영한다.

시는 앞서 지난 해 11월 필리핀 팜팡가주 구아구아시·산루이스시, 12월 베트남 업무협약 비탄시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달 안으로 베트남 박간성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의 핵심 열쇠가 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과정 전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전년 대비 외국인 근로자 수가 약 8배 늘어난 만큼 불법이탈, 인권보호, 적정임금 지급 등 농가, 근로자 모두가 안정적인 영농과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정영철 영동군수,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총력



정영철 영동군수가 지난 7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총력전을 지시했다. 정 군수는 "세계국악엑스포 유치는 국악의 고장 영동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다"라며 "5개월 남짓 남은 국제행사 최종 승인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개최 계획을 승인했고, 이달 기획재정부 심사와 3월~6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성등급심사를 거치면 오는 7월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정 군수는 "심사자 관점에서 냉철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엑스포 유치 준비 과정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또한,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분

위기를 한층 더 끌어 올릴 것을 강조했다. 정 군수는 "음면 순방때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퍼포먼스를 통해 군민의 열망을 재확인했다"라며 "열망하는 영동군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유치 활동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군수는 "현재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챌린지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라며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유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동군은 세계국악엑스포를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를 주제로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내년 국비 '10조시대' 연다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 개최...중점 사업 점검·전략 논의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한 민선8기 '힘센충남'이 내년에는 국비 확보액 10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실국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예산 확보 추진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보다 9411억 원 많은 10조 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 사전 발굴 △도정 중점 과제 및 주요 도정 사업 본격 실천 등으로 잡았다.

또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통과 등 민선8기 가시적 성과 창출 △2023년 국비 확보 주요 도정 현안 사업 적극 추진 △수시 배정 사업 정상 추진 △공모 사업 체계적 관리 추진 △지난해 정부예산 미 반영 사업 관리 등도 기본 방향으로 내놴다.

목표별 주요 사업 및 내년 확보 목표액을 보면,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는 △바이오메스 비전센터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42억 원 △탄소중립 바이오 가스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5억 원 △서해선과 경부고속

선(KTX) 연결 2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한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 생산 플랜트 건립 2억 원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35억 원 △농촌형 특산물 인프라 조성 3억 원 등을 확보한다.

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29억 원 △ICT 기반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은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장항 국가 습지 복원 사업 34억 7000만 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시설 증축 개보수 22억 원 △K-유교 에코 뮤지엄 조성 사업 20억 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10억 원 등은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설정했다.

내년 신규 확보 목표 사업은 총 95건 2435억 7000만 원으로, △충남 방산 혁신 클러스터 사업 78억 원 △차량용 융합 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 1억 5000만 원 △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5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140억 원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 27억 2000만 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8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 분석



기술 정립 및 실태조사 5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00억 원 △충남 서산공항 20억 원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5억 원 △해양생명자원 전용 조사선 건조 2억 원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 섬 조성 5억 원 △담수호 복원 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추진 10억 원 △원산도-효자교 연도교 설치 5억 원 등도 신규 사업 목록에 올렸다.

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2~3월 실국별 부처 정책 간담회 △4~5월 지휘부 부처 방문 활동 △6~8월 부처 반영 상황 보고회, 기획재정부 편성 예산 심의 대응, 국회의원 초청 도정 설명회,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정당별 예산정책협의회 △9~12월 정부예산안 최종 반영 보고, 국회

캠프 운영, 지휘부 국회 방문 활동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채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는 민선8기 핵심 공약 및 도 역점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목표부터 과감하게 설정하고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전략사업 발굴, 대형 SOC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도는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부서별 중앙부처 및 기재부 방문 등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민선8기 도정 성공을 위해 역량결집에 나서

도정자문을 위한 국회의원, 명예도지사, 특별명예고문 초청 간담회 개최



충청북도는 민선8기 도정의 성공적인 운영과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8일 국회의원, 명예도지사, 특별명예고문을 초청하여 도정자문 간담회를 열고 도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인 양양자 국회의원과 충청북도 명예도지사로서 위촉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상철 前강릉영동대 총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특별명예고문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가 참석했다.

충북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레이프파크 르네상스 추진, 전국 최초 의료비후불제, 어쩌다 못난이김치 등 민선 8기 도정 운영방향과 주요 역점사업을 공유하고, 충북의 미래 발전방향을 깊이 있게 토의하고 의견을 구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충북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산적한 여러 현안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도정혁신과 충북 미래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천안시, 국비 1615억 투입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하천' 조성

곡교천 1137억원, 삼룡천 490억원, 원성천 467억 투입, 호우에도 안전한 하천 구축

천안시가 곡교천 등 하천에 국비 1,615억 원을 투입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하고 친수공간까지 두루 갖춘 '명품하천 조성'에 나선다.

시는 곡교천과 삼룡천, 원성천 등 지방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여가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0년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 총 15km 구간에는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137억원을 투입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천안시 구간은 풍세면 가송리 일원 약 8km에 해당한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호안(보축)정비 및 폭우 시 배수능력을 입증하는 통수단면 증대, 여유고가 부족한 교량 재가설 등을 통해 100년 빈도 홍수에도 끄떡없는 하천 정비를 시행한다.

또 풍세·광덕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남관교 재가설도 이번 사업에 포함돼 추진 예정이다.

시는 이와 더불어 곡교천 하천정비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사업비 80여억원을 투입해 시민들의 문화·여가공

간으로 곡교천을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천 내 제방도로와 산책도로를 포장해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과 발 빠르게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상습침수로 몸살을 앓아왔던 구성동 일대 삼룡천도 확 바뀐다. 시는 총사업비 490억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총 2.54km 구간에 교량 8개를 재가설한다.

또한 2022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된 다가동, 원성동, 유량동 일원의 원성천에는 총사업비 46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교량 9개소 개량, 하도준설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천 내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최대의 재해예방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하천을 휴식과 문화, 낭만이 풍요롭게 흐르는 새로운 지역 명소로 변화시켜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7일 출범식 열고 역사적 첫발

박경귀 시장 "진정한 참여자치 통해 37만 시민 주권 확대해나갈 것"

박경귀 아산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7일 선문대학교에서 출범식을 열고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

출범식이 열린 2월 7일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22일째 되는 날로,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함께하는 참여자치 아산'의 의미를 담았다.

박경귀 시장은 출범식에서 "시정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는 전국 어디에나 있지만, 추첨에 의해 선발된 일반 시민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주도하는 위원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아산시정은 주권자인 시민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참여자치위원회를 통해 37만 아산 시민의 주권을 확대해나갈 것"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참여자치위원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사회복지분과 시민위원에 위촉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은 "평소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방과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분과 시민위원은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아산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정·안전분과 시민위원으로 위촉된 한 시민은 "아산의 가정주부로서, 집안이나 집 밖이나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원등기도, 직업, 연령대도 제각각이었지만 더 나은 아산시를 만드는 데 열정과 아이디어를 보태고 싶다는 의지는 하나였다.

아산시민들의 시정 참여 열망과 의지는 시민위원 모집 경쟁률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약 18일간 진행된 12개 분과별 시민위원 공개 모집에 최종 779명이 몰려 평균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민위원은 추첨 전문가관의 무

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분과별 10명씩 총 120명이 선정됐으며, 이후 관내 대학과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활동가가 포함됐다.

이렇게 위촉된 제1기 아산시 참여자치 위원 217명은 앞으로 1년 동안 12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박 시장은 "시민이 직접 본인의 삶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여자치이자, 민선 8기 아산시의 비전인 '참여자

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의 첫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자치위원회라는 아산시의 과감한 도전이자 독창적 자치 모델이 새로운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가 되어 지방자치 활성화에 새로운 분수령이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보수와 진보, 나이와 성별을 넘어, 하나의 아산으로 융화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참여자치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평택시청 불링팀 대한불링협회 표창 수상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불링팀이 지난 7일 대한불링협회가 주최한 2022년도 불링 유공 표창 시상식에서 여자일반부 우수단체상, 우수선수상, 우수지도자상 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시상은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외 불링대회 입상 실적, 지도자의 지도력 등을 평가하여 대한민국 불링 발전에 기여한 불링팀과 선수 및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평택시청 불링팀은 2022년 한 해 동안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여자일반부 종합 입상 실적 1위로 우수단체상을 받았다. 또한 손혜린 선수는 여자일반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우수선수상을 차지했으며, 2022년 여자일반부 종합 입상 실적에서 평택시청 불링팀을 이끌어 1위를 달성하고 평소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은 오용진 감독은 우수지도자상을 받았다.

손혜린 선수는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1위를 하게 되어 너무나 기



평택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불링팀이 2023년 (사)대한불링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오용진 감독은 "그동안 고된 훈련을 견뎌 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평택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정상선 평택시장은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평택을 빛내준 불링팀 감독과 선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58만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양시현/기자

광산구,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우수상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선배시민네트워크 사례로

광주 광산구는 제1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정책대상은 우수한 고령친화 정책을 발굴해 공유·전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외부환경,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사회활동, 사회참여와 일자리, 사회적 존중과 통합 등 8개 지표에 대한 평가 이뤄진 가운데, 광산구는 직영시설인 더불어락(락)노인복지관의 선배시민네트워크와 'The가까이! The충충히! 고령친화 상생보건소' 등 정책 사례의 성과로 우수상을 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진행한 선배시민네트워크 사업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신노년 문화 문화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초고령화에 대비해 복지, 일자리,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정책을 펼친 광산구의 성과와 노력이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새로운 광산,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시민을 이롭게 하는 광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남원시의회 김영태·손중열·염봉섭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

남원시의회 김영태·손중열·염봉섭 의원이 2월 7일(화) 전라북도시·군의회 의정봉사상(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도내 기초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영태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제9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유의 독심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원활하면서도 내실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 주목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으며 의용소방대 활동과 지원에 관한 「남원시 의용 소방대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이 밖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조직개편 개선 촉구 관련 제언, 옷질목공예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시민의 입장에서 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손중열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제9대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백면



양강~내동간 농어촌도로 개설 촉구, 남원민의 특성을 살린 스포츠마케팅의 활로 방안에 관한 제언, 남원 도자문화 발전방안에 대하여 발언했다. 이밖에 남원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며 의원연구단체인 <구룡계곡 역사생태 보존 연구회>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남원에 생태환경과 인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각종 의정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염봉섭 의원은 재선 시의원으로 제9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구 활동을 넘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행정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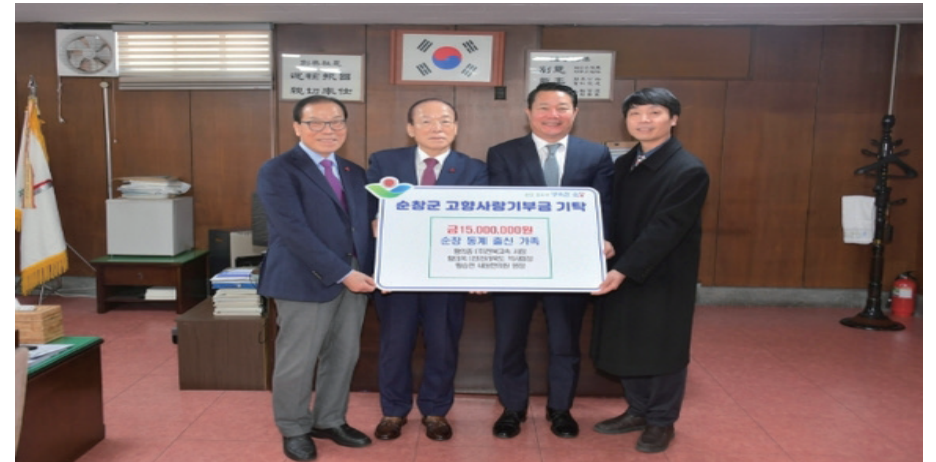
전북고속 황의중 대표 가족 3인,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500만원 기탁

고향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 출향인사들의 연이은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기부금의 주인공은 순창군 동계면 출신 전북고속 황의중 대표 가족 3인으로 황 대표와 동생인(전)재전순창향우회 황의욱 회장, 장조카인 세동한의원 황승연 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동시에 기부했다.

전북고속 황 대표는 2009년부터 매년 창립기념일, 설, 추석이면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시설 지원은 물론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대중교통을 위해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산업발전기여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동생인 황의욱 회장은 전주 시 자원봉사센터장을 역임하며 어르신,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 이동봉사활동, 계절 김치 전달 봉사 등 나눔을 몸소 실천해 왔다.



황의중 대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발맞춰 내 고향 순창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동생, 조카와 상의하다 이왕이면 셋이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뜻을 모았다"라며 "이번 우리 가족의 기부가 내 고향 순창 발전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고, 향우들의 고향사랑 기부 또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진수/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힘, 성남7)은 8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는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경기도의회 의정발전에 헌신하고 도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됐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박명숙, 윤종영, 이서영 의원이 선정됐으며,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이상원, 이기인, 유경현, 정동혁 의원이 선정되어 총 7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숙 의원(국

힘, 양평1)은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점검강화와 전 도민 방독면 보급 검토를 요구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윤종영 의원(국힘, 연천)은 일선 소방서의 갑질 사건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협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국힘, 비례)은 소방안전을 위한 조기 안전교육과 인력 철폐와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체감형 도민 인력교육을 당부하는 등 도민 안전과 인권 의식 향상에 노력했다.

의정활동 우수위원에 선정된 이상원(국힘, 고양7), 이기인(국힘, 성남6), 유경현(더민주, 부천7), 정동혁(더민주, 고양3) 의원은 세밀한 예산심사와 꼼꼼한 정책 검토, 토론회 및 주민 정담회 개최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의정활동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계일 위원장은 "수상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드리고 도민의 안전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리다"며, "올 한해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군산시의회, 2023 아동복지분야 유공자 표창장 수여

박성광 온라인 태권도 관장, 아동권리보호 확산 기여

군산시의회는 지난 7일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과 강민숙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일 의장이 박성광(온라인 태권도관장)에게 2023 아동복지분야 유공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박성광 온라인 태권도 관장은 평소 학원을 성실히 운영해 오면서 아이들의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과 무료 교육을 제공했고 어려운 아동을 위한 정기후원, 물품 후원, 봉사활동 등을 펼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호 확산 공로를 인정받아 시의회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성광 태권도 관장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더욱더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도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장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박성광 태권도 관장



김영일 의장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박성광 태권도 관장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시민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역 아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아동에 대한 봉사가 시민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전남도,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지혜 모아

스마트·ICT농업 전문가 등 13명 참석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전남도가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전남도는 7일 도청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농업 분야 전문가, 용역업체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김관수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위원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농업 분야도 첨단 농산업을 선도하도록 연관 산업을 집적한 지구 설립 당위성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명동주 씨니머스 대표 등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세계 시장 규모는 약400조 원이고,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농업 분야에도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최대 농축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은 해상풍력, 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로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아

열대작물실증센터 등 농산업 기반이 잘 갖춰졌다. 농생명 혁신기관이 집적화해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항공·항만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해 첨단 농산업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스마트 농업시장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농산업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압축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지혜를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첨단 정보통신기술 애그테크 실현을 위한 첨단농산업진흥원·빅데이터센터,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등 농업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건립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에서 구상중인 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은 한국농업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미래농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역을 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연구기관, 전남지역 농업관련 대학·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 농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결과물 도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혜영/기자



구미시, 한국식품연구원 연계...세포배양산업 본격 추진

세포배양산업 업무협약 체결,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구미시는 7일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세포배양산업 육성 전략 발표에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도 주관으로 지자체 4개 시군(구미, 포항, 경산, 의성)과 교육기관, 연구·지원기관,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바이오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시장 변화에 따른 경북 세포배양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다.

한편, 구미시는 향후 신공항 배후도시로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 설립과 연계하여 배양식품 등 미래 식품 산업과 연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우수한 원천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배양식품의 소재 생산에서부터 제조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품질 표준화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식품연구원 분원을 중심으로 미래 식품을 테마로 한 대형 국제과제 기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포배양은 '동물 생체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증식 및 분화시키는 데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크게 원부자재(배지 등)와 장비로 분

류된다. 주로 기초연구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단백질, 면역·유전자, 줄기세포 치료제 등)과 식품·화장품 스킨케어 등에 활용되고, 최근엔 동물세포 배양식품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바이오 선진국이 선도하고 있는데, 2019년 1,774천만\$에서 2024년 3,255천만\$으로 시장이 확대될(연평균 12.91%성장) 전망이다.

특히, 배양식품이 상용화될 경우 세포배양시장은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원부자재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장비도 국산화율이 16.5%에 불과할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김창호 구미시장은 "앞으로 설립 예정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분원과 연계하여 세포배양식품의 표준화, 기술 개발, 대량생산 실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학·연구소의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선도하고, 대학과 마이스터고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공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광삼/기자

포항시, 세포배양산업 인프라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 '젠걸음'

3D바이오프린팅 기술 등 연구 인프라 기반으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포항시는 포스텍과 포항TP 등 세포배양산업 관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배양 식품 및 인공장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부터 시제조·생산 인증이 가능한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포항시는 7일 경북도청에서 경북도와 경산·구미시·의성군, 포스텍, 포항TP, 티센바이오팜, 씨위드 등 28개 산·학·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세포배양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 및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세포배양기술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R&D 및 인프라 지원 △세포배양 관련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산학연 공동 R&D △응용연구, 실증, 표준화 및 제품화를 위한 지원 △세포배양 핵심 소재·장비 및 연관 산업 공동 연구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세포막단백질연구소 입주기업으로 마블링 기술을 확보한 티센바이오팜과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입주 중인 배양육 기업 씨위드를 비롯해 소재·장비, 배양육 등 세포배양 전후방에 포진된 중견·벤처 기업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경북도는 세포배양 산업을 포항시를 비롯한 의성군, 경산시, 구미시 등 4개 시군의 산업적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려 세포배양 클러스터로 조성해 시너지를 높인



다는 경북 세포배양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세포배양산업은 동물 생체로부터 분리한 세포를 증식 및 분화하는 데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술로 크게 원부자재(배지 등)와 장비로 분류된다. 주로 기초연구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단백질·면역·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 등)과 식품·화장품 스킨케어 등에 활용되고, 최근엔 동물세포 배양 식품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포스텍이 세계 최고

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통해 동물세포와 해산물을 활용한 3D프린팅 배양 식품과 인공장기의 상용화를 지원해 벤처·스타트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배양 식품 단가와 대량 생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포항TP는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으로 그린바이오 5대 분야 중 하나인 대체식품 유망기업을 유치·육성할 예

정이다. 해양바이오 융복합 연구 및 실증용 인프라인 해양바이오메디컬 실증연구센터를 기반으로 대체 식품용 해양신소재 발굴과 대체식품 상용화 사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를 바탕으로 포항시가 세포배양산업화를 선도할 세포배양 특화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L'자의 대역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올 상반기 대규모 공사 대비

용인특례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마무리 단계...별목 등 본 단지 조성 나서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대상지에 대한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어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여해 용인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7일 원삼면 일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99%, 지장물 보상(소유주 기준)은 75%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현재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에 대한 별목공사와 가설시설물 설치 등 본 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시는 매정된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문화재청과 협의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승인

신청 이전인 2019년 4월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령리 느티나무, 독성리 유적추정지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했다.

문화재청은 지표 조사가 이뤄진 유적을 대상으로 표본·시굴조사를 하는 등 정밀 검증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보존 가치를 판단한다.

용인특례시는 발견된 유적추정지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 여부에 따른 처리방침을 단계별로 검토해 놓고 있으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 플랫폼시티를 한 데 묶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서 용인 플랫폼시티 내 27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이용해 R&D부터 제조 공정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SK 하이닉스 중심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수도권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용인

플랫폼시티가 'L'자형으로 이어지며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룰 것으로 두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면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충북 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월 7일 10: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지역구 국회의원인 도종환, 박덕홍, 변재일, 엄대영, 이상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가나다 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이상섭 의원이 주관한 가운데,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참석하여 충북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충북의 주력산업이자 첨단전략산업인 충북 반도체, 이차전지 육성전략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충북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의 강점과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실현을 위한 충북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운영 방안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회는 이일우 청주 SK하이닉스 부사장, 임영목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MD,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단장, 이주현 한국산업기술포럼 본부장, 김남호 LG에너지솔루션 상무, 정순남 한국전자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분야별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안과 향후 충북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실현을 위한 중부권 거점 도약을 위하여 특화단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충청북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

가들의 제언을 수렴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결과 반도체 생산액 전국 2위, 이차전지 생산액 전국 1위 등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실현을 위한 최적의 충북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하여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제 경쟁력을 갖 추게 하는 일이 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 있게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충청북도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밸류체인 확보로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 교육을 변화시켜 지역 대학과 우수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역 문화 예술 역량 강화로 기업인들의 정주여건 강화,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한 항공 물류의 길 개척 등을 약속했다.

고정화/기자



K-로컬 전성시대, 7대 프로젝트 발표

지금 갈수록 지방소멸의 위기가 고조되어가 있어 결국 지방소멸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구감소지역 중 95.5%인 85곳이 비수도권인 만큼 지방은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난해 말까지의 인구수 5,100만 명이 49년 후인 2070년에는 3,800만 명, 649년 후인 2700년에는 인구수가 1,700만 명으로 감소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의 청년유출과 자살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역대학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고 지방소멸로 이어져 자칫, 세계속으로 뿔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마저 무너뜨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다, 무엇보다 경상북도를 지탱하고 나아가 할 버팀목 세대인 경북의 청년 유출은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경상북도 올평균 인구가 지난 1월말 기준으로 8,967 명이다. 이와같이 갈수록 경북도의 인구가 매년 올평균 인구수만큼인 약 9천 명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더군다나, 이곳 경북도는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자그마치 전국 105개 중 21.9%인 23곳으로써 불명예스럽게도 최고를 달리고 있으며,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4곳 중, 1곳으로 2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신입생 단절, 휴교, 폐교로 이어져 가고 있는 아사 직전의 상황처럼, 여간 예사롭지 않다.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385개 대학이 20년 후에는 190개 정도만 남게 돼, 대학이 반토막 날 위기는 고사하고 자칫 대학소멸을 낳게 해, 이는 곧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고 말 것이다.



「청년유출→인구소멸→대학붕괴→지방소멸→대한민국 붕괴」

인구소멸을 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올해, 7대 생애리사이클링(4대정주혁명 + 3대돌봄혁명)정책수립

내년, 4대 정주혁명 우선 실행으로 지방정주시대 초석 마련

지금 지방시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대통령 + 도지사

준연방주의

지방정부, Province → State

지방조직권 등, 특별지방행정관청, 대학, 비자권까지 예) 고등교육정책실

"서울이 지방을 쳐다보는 시대로..."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

「지방 정주혁명, 청년 4대 패키지」

교육지원 혁명 > 등록금 무상지원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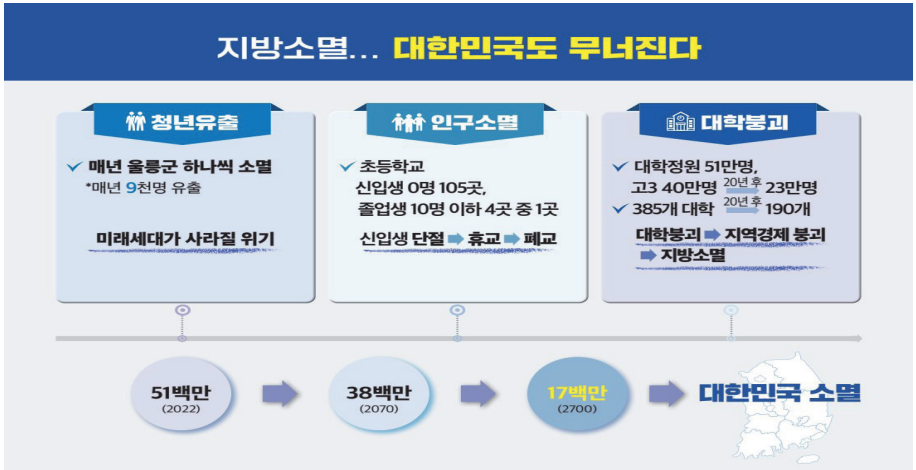
1시군-1대학 전략학과 지원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지원

취업지원 혁명 > 대기업 임금 보전

2년 근무, 단계적 확대, 지역청년우대카드 등 지원
※ (초임)대기업 4.5천만원, 중견기업 4천만원, 중소기업 3천만원
고졸 취업자 → 대졸 취업자 임금수준 보전

이런 심각한 위기를 간파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솔직히 용인시 이하로는 청년들이 아예 내려 오지를 않는다"고 말하면서 "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 취업,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떠나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떠나는 청년들을 떠나지 않고 이곳 지방에 살게 하려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기업에 취업해도 삼성과 같은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서울과 같이 누리고 살 수 있는 수도권에 사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가고자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금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운석열 정부와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 지방자치, 지방조직,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 등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하여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 매고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을 위해 이리저리 힘껏 뛰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23년 올해 목표를 지방정주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확실한 지방시대를 실현시키는 해"로 정하여 대한민국 최최이자 전국 1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 1월 1일부터 경상북도 도청내 '지방시대정책'을 신설하고 올해 1월 25일 업무보고에서 영국의 경제학자로 영국 노동장관을 지낸 베버리지가 주창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국민의 삶을 보호한다'는 복지국가의 원초처럼 경상북도가 경북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된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통한 '7대 생애리사이클링 정책'이다. 7대혁명은 '4대 정주혁명'인 ▲교육지원혁명, ▲취업지원혁명, ▲주거지원혁명, ▲결혼지원혁명과 '3대 완전 돌봄혁명'인 ▲출산지원혁명, ▲보육지원혁명, ▲돌봄지원혁명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주기를 순환하는 지방정주시대를 정착하기 위한 사상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해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상반기에 전략과제와 세부사업을 설계하여 올 연말에 가용재원 3조의 10%인 약 3,000 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부터 정책을 실행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선적으로 지방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에 정주시키기 위한 4대 정주혁명 정책을 먼저 실행하고, 후속으로 3대 완전 돌봄 정책을 실행하여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방정주시대로 대전환 하겠다"는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이러한 경북도가 「K-로컬 7대 프로젝트」중 지방 정주시대를 열기 위한 4대 정주혁명 정책은 아래와 같다.

▲ 교육지원혁명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는 직업계고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수가 대담하여 2학년 때는 이론을 가르치고, 3학년 때는 실습을 시켜 인턴과정 없이 바로 기업현장에 취업하여 대졸 연봉만큼 임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병역특례도 지원하고, 군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도 지급하며, 향후 학사 취득 시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대학이 특성학과를 신설하여 「1시군-1대학」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학과를 연계시켜, 지역 전략학과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바로 취업하게 된다.

▲ 취업지원혁명이다.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연구개발, 기업에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 주거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렌트비,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 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

▲ 결혼지원혁명이다. 전략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가 안정되어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5천만 원을 10년간 용자지원 해 줄 방침이다.

다음으로 「K-로컬 7대 프로젝트」중 '3대 완전 돌봄 혁명' 정책은 아래와 같다.

▲ 출산지원혁명이다. 지금 저출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이를 위해 출산 지원금을 첫째아이 출산시 대폭 증가한 금액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돌

봄아이는 이보다 더, 셋째 아이 출산시는 보다 증가된 출산지원금을 대폭 증가시키는 출산지원책을 강구해서 자녀 계획을 고민 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며, 또한 출산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현재 15일에서 3개월로 늘리는 등, '경상북도가 출산을 책임지는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보육지원혁명이다. 아이가 태어나 이 아이가 잘 보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대폭 증가 시키는 등 금전적 지원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함께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며,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적 혜택 지원 등 보육지원 정책을 파격적으로 펼쳐 나가 '아이 보육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돌봄지원혁명이다. 지금 돌봄서비스는 시간제·종합형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등 정부 돌봄 서비스가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 서비스를 기점으로 경북도 특별한 지원책으로 아이 돌봄 가계 부담 제로, 119아이행복 돌봄 터 등을 추가해서 돌봄지원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써 아이 출산, 보육, 돌봄의 '3대 패키지'로 각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출산·보육·돌봄 지원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박성수 지방시대정책장은 언론인 브리핑에서 "앞으로 7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K-로컬 7대프로젝트 TF추진단'을 프로젝트분야별 국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경북도와 시군, 대학, 기업 등이 함께 협력하여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야심찬 각오를 불태웠고, 언론인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거침없는 하키키로 자신감을 피력해 추진하려는 프로젝트가 대박 성공할 것이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앞장서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책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지방시대가 주도하여 '5만 불 시대'를 달성하고 G7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진입하여 초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기업, 대학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솔직히, 경북도가 지금 시행하려는 지방시대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미로(迷路)이다. 윤석열 정부와 이철우 경

경북도의 새로운 희망인 대국민

북도가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어 지방 정부를 세워, 미국의 주와같이 준연방주의를 만들어 지방조직권, 특별지방행정관청, 대학, 비자권까지 가지는 지방자치권을 실현함으로써 늘상 서울만 바라보던 서울 중심(中心)사고에서 이제는 거꾸로 서울이 지방을 쳐다보는 시대로 만들어 가자는 구상이다.

「청년유출→인구소멸→대학붕괴→지방소멸→대한민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절차같이 진행될 이런 절대절망의 시기에 이철우 도지사가 내놓은 극약처방인 지방정부 살리기 프로젝트는 반드시 추진돼 성공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이 지사의 깊은 해안에서 나온 경북도의 획기적, 파격적, 혁신적인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게 갈 수 있는 최고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나가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줄어드는 인구가 늘어나며, 감소하는 대학이 예전보다 더 빛을 발함으로써 '꽤나 청청나네'가 울려 퍼져, 경북도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경북도가 구상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길 기원드려야 할 것이다.

대구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불법행위 적발

검찰 송치 4건, 과태료 처분 1건

대구시는 지난해 말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탐문수사를 벌여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중 적발된 5개 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달성군·동구 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해 온 농장들로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해 오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달성군 소재 3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를 퇴비화 시설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에 야적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했으며, 다른 한 개 사업장은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동구 소재의 한 개 사업장은 축사 지붕을 제거한 상태 운영해 오다 처리시설 설치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축산농가에 대해 관할 구·군을 통해 행정처분 및 이행실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으며, 공공수역 오염물질 유출(3),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1) 위반행위를 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농가에 당부드린다"면서, 대구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의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종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박차

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등 수거하면 현수막은 장당 최대 2000원, 벽보는 장당 최대 200원 지급

종로구가 오는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이달 17일까지 참여 모집에 나선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관내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제공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자격은 20세 이상 종로구민 및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종로구지부 회원이다. 저소득층을 우대하며, 신청 시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방법은 오는 2월 17일까지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준비해 구청 도시경관과를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결과는 22일 개별 통보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수거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단속원증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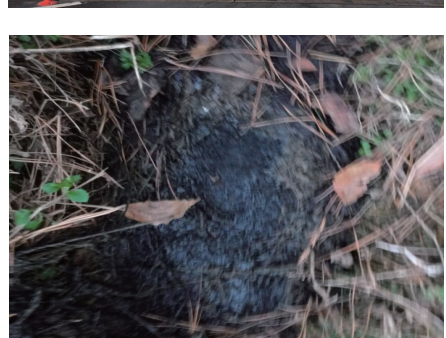
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0~2000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각각 지급 예정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불법 유동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불법건축물, 하수도배수관처리법 실태고발

-하수도 배수관은 평탄작업으로 파손되어 악취와 분뇨가 흘러나와 쌓인 오물덩어리들 발견
-제멋대로 묻혀있는 정화조 배수관과 정화조에 연결되지 않아 노출된 배관 모습에 행정처리하는...?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에 있다.

영암군 민원인 제보에 따르면 6년 동안 방치하여 정화조 청소하지 않아 밖으로 흘러 악취와 분뇨가 덩어리로 발견되어, 정화시설 문제를 영암군에 민원을 넣고 지적했다가 밝힌 사실을 확인, 현장에서 목격된 것은 하수도 배수관은 평탄작업으로 파손되어 밖으로 드러나 있었다.

정화조 배수관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배수관으로 인해 악취와 분뇨가 흘러나와 쌓인 오물덩어리들을 주변에서 발견할수 있었다.

분뇨와 생활하수 처리에 대한 법을 만들어서 지키지않는 민원에 대해 영암군에서의 행정조치와 민원인에 대한 여러사항들이 아주 흥미롭다.

분뇨덩어리가 크게 발견되어 신고가 달 정도로 주변에 악취가 지역을 헤치는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지역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있고 민원인의 신분 유출은 물론이고 그렇게 따지면 안걸리는 집이 없다고 반문하는 공무원의 응대와 힘들게 한다면 민원인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행정이 재밌게 비춰졌다.

민원에 관계된 지번은 귀농한지 7년차 귀농인으로 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661-1번지의 주택 주변에는 돌아가며 가축을 달아내고 있었다. 불법건축물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가축을 4면으로 달아내고 저장창고도 불법으로 신고도 없이 지어진것으로 드러났다.

가축을 달거나 창고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오래된 관행처럼 이

어져오고 있는듯하다.기득권자와 관계 당국의 목인없는 불가능 한데 오히려 관계당국이 목인하고 있는 실정을 실제 3개월에 걸쳐 지켜보며 확인할수 있었고 관계 기관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분위기인데 굳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였다.

가축을 달거나 창고 등을 불법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오래된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는듯하다.기득권자와 관계 당국의 목인없는 불가능 한데 오히려 관계당국이 목인하고 있는 실정을 실제 3개월에 걸쳐 지켜보며 확인할수 있었고 관계 기관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하는 분위기인데 굳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였다.

지역이라 신고들어온 민원을 처리하게 되면 다른집들도 해야하니 어쩔수없다식이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화를 내며 힘들게 한다는 영암군청 환경기후과 관계자를 지켜보니 우리나라 행정은 지키는 사람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우리나라 행정과 공무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며 법리를 만들고 조례를 만든다. 행정당국조차 지키지않는 법에 낭비하는 혈세가 과연 옳은 것일까.

환경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고 정책을 살피는지 매우 중요하다.

고정화/기자

대전시 서구, 2023년도 청소행정 특별대책 추진

주민이 체감하는 '쓰레기 걱정없는 서구' 만들기

대전 서구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2023년도 청소행정 특별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쓰레기 걱정없는 서구'를 만들기 보고회를 개최했다.

깨끗한 서구 만들기는 서철모 구청장 취임 시, 주민 생활환경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오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새 봄맞이 플로깅 캠페인을 시작으로 쓰레기 걱정없는 서구를 만들기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서구청장 취임과 함께 민선 8기 생활환경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0월 일부 등에 생활폐기물 중간집하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해 수거 체계를 개선할 계획에 있으며,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을 위한 재활용품 배출 홍보 달력을 제작 배부하는 등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3년도 청소행정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새 봄맞이 플로깅 캠페인 전개' 등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쓰레기 Zero!, Clean 서구' 범 구민 운동을 전개하고 동별 깨끗한 동네 만들기 시범거리를 조성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관내 공한지를 일제 조사 후 공한지 내 환경정비를 통해 소유자 등의 시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정거장 운영으로 공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부족한 주차 공간 마련과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밖에도 동별 주민자율청결봉사대 구성, 클린릴레이 활동 전개, 불법쓰레기 통장 신고제 확대, 1차생단체 1구역 지정 관리제 운영, 재활용품유기보상제 확대,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2023년도는 민선 8기 실질적 원년의 해로 그동안 준비한 각종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해 새롭게 변화된 서구의 모습을 주민분들이 직접 체감해야 한다"라며,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 마련한 청소행정 특별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거둘 수 있도록 구, 동을 떠나 전 공직자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쓰레기 걱정없는 깨끗한 서구를 만드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경남도 특사경,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7일부터 수입 수산물 국산 둔갑 등 부정 유통·판매행위 적극 대응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도내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수입 수산물의 무분별한 국내 유통, 국내산 원산지 둔갑 사례 증가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기획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은 ▲수입산 수산물 국산 둔갑 판매행위 ▲지역특산품으로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수산물 판매행위 등을 도내 수산물 취급 업소 40여 개소에 대하여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만난 주부 홍모 씨(경남 창원)는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에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구입한 수산물이 혹시 일본산은 아닌지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문이 자주 든다"라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산물 수입 물량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순으로 4개국 이 전체의 69.4%를 차지한 반면, 일본산은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체 수입량 중 활가리비, 활참돔, 활명게, 활방어 등은 일본산 비중이 각각 95% 이상으로 높아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점검대상과 품목을 정하기 위해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둔

갑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을 선별하여 그 가격 차이와 원산지표시 위반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업소)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국내산 수산물까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일부라도 해소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재현/기자



무안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꼼짝 마!!

전남 무안군은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늘어남에 따라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불법소각 예방 홍보를 위해 각 마을마다 마을방송 및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고 오는 3월 말까지 9개 읍·면을 집중 순찰하여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 시 위반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및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페드럼통

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김산 군수는 "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기 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민은 적극적인 동참을 해달라"고 말하며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환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않은 시설이나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광남/기자



대전 0시 축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해외 주요도시 관광박람회 등에 홍보

대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대전 0시 축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문화, 예술, 체육,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100개의 이벤트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대전 0시 축제'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2개소와 해외 주요 도시 현지 로드쇼, 관광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며,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방한 관광 상품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전 0시 축제'는 올해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대전역~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

다.

대규모 길거리 퍼레이드, K-POP 공연, 지역문화 예술인이 펼치는 프린지 페스티벌 등과 함께 야간 길거리 문화축제에 어울리는 다양한 야간 공연 및 야간콘텐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승원 시 관광진흥과장은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선정은 '대전 0시 축제'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며, "'대전 0시 축제'를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뿌리축제 ▲대전뽕축제 ▲대전0시 뮤직페스티벌 등도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됐다.

김원호/기자



완도군,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UCC 공모전 개최

지난해 11월 이후 촬영한 사진 및 UCC 10월 31일까지 접수

완도군은 완도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 특색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 명소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발굴하고자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내가 추천하는 완도 가볼 만한 곳'이다.

공모 대상은 완도 해양치유 체험, 지역 특산물(품) 체험, 한 달 살기 체험, 지역 문화 체험, 리얼 레저 활동, 지역민과의 교류, 축제·행사 체험, 숙박·음식 체험 등 2022년 11월 이후 촬영한 미 발표자 사진 및 UCC이다.

출품 가능 수량은 사진은 1인·1팀당 3점 이내, UCC는 1인·1팀당 1점 이내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품 가능하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사진 분야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8점, 장려 10점, 입선 30점, UCC는 대상 1점, 최우수 2점, 우수 3점, 장려 4점으로 총 61점을 선정한다.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은 1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2023 관광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여행지를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사진과 UCC를 선정하여 완도군 관광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2023년 '완도 가볼 만한 곳' 관광 사진 및 UCC 공모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영을/기자

경기상상캠퍼스, 2022년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 수요처 선정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내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 수요처 지정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대표 이사 유인택)가 지난 1월 26일,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2022년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 수요처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 수요처'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로,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다양한 일감 마련, 체계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선정한다. 올해 수원시에서는 약 800여 개의 자원봉사 수요처 중 경기상상캠퍼스를 포함한 총 5개 기관이 우수 수요처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에게는 우수 수요처 현판이 전달됐다.

경기상상캠퍼스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수원 내 복합문화

공간으로, 문화예술 기반 다양한 행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상상캠퍼스는 지난 1년간 전시장 동선 안내, 교육프로그램 활동 보조, 행사 운영 보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연계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했으며, 인근 지역 대학 학생들과 상호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관계자는 "1년 동안 다양한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경기상상캠퍼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제65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5월 18일부터 21일 개최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 지난해 9월 개최된 제64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밀양강 오딧세이' 전경

밀양시는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제65회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영남루와 밀양강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밀양아리랑대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42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고 174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양 관광산업의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을 재확인한 바 있다.

올해는 '2023 밀양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요즘 관광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MZ세대와 가족단위 관광객을 겨냥해 함께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투어 프로그램 등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개발하는 등 한층 젊어진 축제의 장을 만들

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밀양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딧세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에게 격조 높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 다.

특히 체계적인 재해대책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축제 기획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 프로그램 준비와 안전한 구성으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일호 시장은 "2023 밀양방문의 해를 맞이해 관광객이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겠다"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슴속까지 잊지 못할 감동과 추억을 담아가길 수 있도록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덕수/기자

서울시 만19세 청년, 20만원 바우처로 문화예술공연 관람하세요!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만19세(2004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 관람이 가능한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인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지급한다. 서울시·(주)신한은행·(주)신한카드-서울문화재단은 사업 시행에 앞서 2월 7일 오후 2시에 민관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은 2월 7일 오후 2시,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유태현 신한카드 그룹장,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참여 아래 진행됐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문화분야 주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사업이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청년층'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됐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청년층 중에서도 그간 입시와 경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만1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예산 67억을 투입하여 만19세 청년들

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를 제공한다. 이제 사회로 나온 만 19세 청년들이 치열했던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따뜻한 심리적 위안을 얻게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의 적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청년(2004년생)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들은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바우처(카드)를 생애 1회 지원받게 되며, 이 바우처를 통해 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등의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도록 도와 문화예술 시장의 소비와 창작을 촉진한다. 그동안의 예술분야 지원정책이 일방적인 창작지원금 지급이 주를 이뤘다면,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술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예술 시장 전체의 지원을

통해 예술소비 계층 전체를 두텁게 만들도록 도와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바우처의 편리한 발급과 사용을 위해 신한은행-신한카드-서울문화재단과 4자 간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를 지급 받는 만19세 청년들은 신한금융그룹 통합 플랫폼인 신한플러스를 통해 신한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신한은행 지급 계좌를 개설하여 20만 원 상당의 문화패스 바우처를 제공 받는다. 이 바우처를 활용하여 서울시내 공연장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이용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신청 및 이용자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관리,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카드발급 및 사용 관련 콜센터 운영,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의 성공

적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 이용 등을 협력하게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각 기관들은 주기적으로 실무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문화패스가 청년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향후 청년문화패스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들을 계속하여 발굴하고, 상호간협력을 통해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는 2023년 4월,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및 청년문화정보통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형 청년문화패스'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 약자'였던 만19세 청년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4자 기관 협약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가 청년들이 향후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시장의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태백시, 2023년 스포츠대회 본격 개최 시작

태백시는 2월 6일 제1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초등 핸드볼대회, 2월 7일 태권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3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월 6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총 6일간 열리는 제1회 대한핸드볼협회장배 전국 초등 핸드볼대회는 총 18개팀, 2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세연중학교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2월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고원체육관에서는 2023년 태권도 국가대표 최

종 선발대회에 128명의 출전자들이 참가해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경합이 들어간다.

또한, 오는 2월 11일 오우리조트에서 유소년 스키어들을 위한 제1회 태백시장배 유소년 알파인 스키대회도 개최된다.

시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실시한 결과, 2021년에는 전국 및 도 단위 33개 대회를 개최했지만,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179% 증가한 59개 대회를 성공적으



로 개최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에만 총 25개의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 방역 제한 완화로 대회를 순조롭게

치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라며 "올해에도 스포츠마케팅에 총력을 다하여 국제·전국 스포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메카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제네시스 대상’ 김영수의 ‘특별한 동반자’ 김재민... “언젠가는 함께 우승 경쟁하는 것이 꿈”



지난해 김영수(34)의 ‘제네시스 챔피언십’, ‘LG SIGNATURE 플레이어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제네시스 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의 순간에는 항상 ‘특별한 동반자’인 캐디 김재민(30)이 있었다.

김재민은 “(김)영수 형이 2022년 최고의 해를 보내 행복했다. 캐디로서 첫 우승을 경험했던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며 “캐디에게도 근사한 트로피를 수여해주신 제네시스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는 대회 우승자의 캐디를 위한 별도 트로피를 제작했다. ‘제네시스 챔피언십’ 챔피언 김영수의 캐디 김재민이 캐디 트로피를 수상했고 선수의 ‘숨은 조력자’ 캐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캐디의 중요성을 알리고, 캐디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쌓아가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김영수와 김재민은 군대에서 만난 사이이다. 김영수가 선임, 김재민이 후임이었다. 김재민은 김영수의 영향으로 취미로만 즐겼던 골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골프 선

수의 꿈을 갖기 시작했다.

꿈은 이뤄졌다. 김재민은 2016년 KPGA 프로, 2021년 KPGA 투어 프로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까지 ‘KPGA 스틱스투어’에서 활동했다. 프로 선발전, 투어프로 선발전을 준비하면서 김영수의 캐디로 종종 나섰다. 김재민은 지난해에는 10개 이상의 대회에서 김영수와 호흡을 맞췄다.

김재민은 “전문 캐디들만큼 풍향, 풍속, 클럽 선택 등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KPGA 코리안투어는 캐디 입장에서도 긴장감이 높은 차원이 다른 무대”라며 “고맙게도 (김)영수 형이 아마추어 시절부터 많은 대회장에 다녀본 경험으로 오히려 나를 이끌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캐디로서 노하우가 부족한 내가 (김)영수 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 선수가 플레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캐디의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했다”라며 “누구보다 (김)영수 형을 깊게 알고 있던 점이 장점으로 다가왔다. 선수의 멘탈을 안정시키고 플레이에 방해되는 주변 요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2023 시즌에도 김재민은 김영수와

손발을 맞춘다. 2021년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자격으로 DP월드투어에 진출한 김영수와 함께 유럽으로 향한 다.

김재민은 “올 시즌 주로 활동할 DP월드투어의 대회코스는 산악형 코스가 많다. KPGA 코리안투어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코스 공략 측면에서 낯설고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제네시스 스킨코티스 오픈 등 세계가 주목하는 큰 대회에 캐디로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대되고 설렌다”며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재민은 골프 선수로서의 목표도 드러냈다.

김재민은 “캐디로서 (김)영수 형과 함께한 경험들은 나중에 투어에서 선수로 활약할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것을 나만의 장점으로 녹여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하고 싶다”며 “언젠가 KPGA 코리안투어에서 (김)영수 형과 같은 조에서 플레이하고 싶다. 우승컵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황지원기자

새 대표팀 감독 데뷔전 3월 A매치 첫 상대는 콜롬비아



3월 국내에서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 첫 상대가 콜롬비아로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3월 24일 콜롬비아 대표팀과 친선 A매치를 갖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경기 장소와 Kick-off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콜롬비아전은 새롭게 부임

할 한국 대표팀 감독의 데뷔전이 될 전망이다.

3월 28일쯤에 열린 A매치 두 번째 경기 상대는 현재 협의중이며, 남미 국가중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륙 선수권 예선 일정이 잡혀있고, 북중미 나라 대부분은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대한축구

협회는 그동안 남미 국가들과 경기 협의를 해왔다.

3월에 열린 이번 친선 두 경기는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해외파 선수들까지 소집할 수 있다.

콜롬비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FIFA 랭킹에서 17위에 올라, 25위인 한국보다 8계단 높다.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는 6위에 그쳐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그동안 7차례 A매치를 치러 한국이 4승 2무 1패로 앞서 있다. 가장 최근의 대결은 4년 전인 2019년 3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로, 손흥민과 이재성의 골로 우리가 2-1로 이겼다.

아르헨티나 출신 네스토 로렌조 감독이 이끄는 콜롬비아 대표팀의 유망 선수로는 하메스 로드리게스(32, 올림피아코스), 다빈손 산체스(27, 토트넘), 루이스 디아즈(26, 리버풀), 후안 콰드라도(35, 유벤투스) 등이 있다.

최만식기자

『2023 KBO Next-Level Training Camp』 2차 훈련 개최

고교 입학 예정 우수 선수 30명 대상으로 내일(8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진행

KBO(총재 허구연)는 내일(8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2023 KBO Next-Level Training Camp’ 2차 훈련을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8일(월)부터 28일(화)까지 총 20박 21일 일정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서 선발한 고교 입학 예정 우수 선수 30명이 참가한다.

기술 습득 및 훈련 효과가 높은 중학교 3학년 유망주 선수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훈련공백기에 프로 출신 지도자들의 우수한 코칭과 바이오메카닉스 장비를 활용한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 야구 기량을 대폭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KBO는 캠프 둘째 날 강창학 구장 실내연습장에서 3D 동작 분석, 지면 반력/무게이동 측정, 키네마틱 시퀀스 분석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바이오메카닉스 측정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선수 개개인이 운동역학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내고 최선의 운동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 선수들은 캠프 종료 시점에 측정을 다시



실시해 자신들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수치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캠프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1차 리틀야구 상비군캠프 코칭스텝과 동일하다. 감독에는 장중훈 전 한화 코치가 선임됐고 김동수 포수코치, 이종열 타격코치, 차명주, 홍민구 투수코치, 김민우 수비코치가 필드 훈련에서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맞게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한다.

코칭스텝은 필드 훈련 시에도 랩소도, 트랙맨, 옛저트로닉, 블라스트모

선 등 첨단 트레이닝 장비를 활용하여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캠프 전체 기간 동안 오전에는 성장기 유소년 선수들의 신체가 야구에 적합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피지컬 트레이닝도 진행한다. (사)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에서 파견한 프로 출신 전문 트레이너가 맞춤형 트레이닝 방법을 제시해 줄 예정이다.

KBO는 그 밖에도 부상방지, 반도핑, 야구심리, 스포츠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참가 선수들이 유소년 시기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인성이 바른 훌륭한 야구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이번 캠프는 서귀포시에서 대정야구장, 강창학 구장 실내연습장과 그물망 등 훈련시설 일체를 제공했으며, 동아오츠카는 신체 밸런스의 중요성에 대한 스포츠 사이언스 교육과 수분 보충을 위한 물, 포카리스웨트를 지원한다.

최광수기자





산소카페 청송군

피톤치드뽀뽀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피톤치드뽀뽀청보리청보리부농부농

향기와 색깔의 향연, 산소카페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군은 이름 그대로 피톤치드 향이 뽀뽀 솟아나는 푸른솔의 고장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봄은 새파란 청보리의 물결이 바람소리를 내고,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가을은 백일홍의 아름다운 자태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을 마주하는 곳!
힐링 명소, ‘산소카페 청송군’

※ 피톤치드: 식물에서 분비되는 향균, 살균성을 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총칭.
※ 부농: 사랑을 연상시키는 분홍색에서 유래된 SNS 용어. 달달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의미한다.



의성의 새로운 100년, 공항도시 기반 구축

